

주요활동사진



① 환경·주민 친화형도시 - 목포 만들기 토론회



② 목포환경운동연합 '99정기총회



③ 전남서남권 갯벌보존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움



④ 2000 유달산 지키기 자전거 대행진



⑤ 유달산 지키기 차량시위 (유달산 지키기 범시민대책본부)



⑥ 유달산 지키기 목포역 집회 (유달산 지키기 범시민대책본부)

주요활동사진



① 어린이 갯벌 탐사



② 유달산 지키기 환경문화제



③ 회원 ·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기행



④ 사진모임 밝음이 출사



⑤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 (호남지역 핵폐기장 반대대책위원회)



⑥ 장도 습지 탐방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1983년~1988년)



목포환경운동사

* 여기에 실린 글은 목포녹색연구회에서 1988년에 발간한 「내땅을 지키고자 - 목포지역 반공해 성공사례」 (폴빛)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제 1 부 영산호를 살리자	13
제 2 부 찢겨진 삼학도에 날개를	60
제 3 부 유달산을 아름답게	69
제 4 부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75
(목포녹색운동단체협의회 편)	

| 영산호를 살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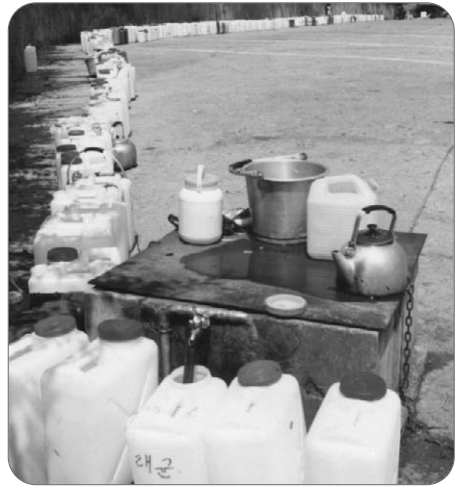
1. 배 경

❖ 목타는 목포

다도해의 푸른 물결이 밀려드는 향도 목포, 아직도 세인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삼학소주와 현재의 보해소주의 고향이기도 한 목포가 ‘갈증에 타는 목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목포 시민들은 개항 이후 지금까지 거의 1세기 동안을 갈증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목포의 물사정은 ‘목포에 사는 사람치고 물지게 한 번 안 져본 사람이 없다’는 말로 표현된다. 지난날 공동수도전 앞에 길게 늘어선 물동이 옆에서 물지게를 지고 서성거리며 아귀다툼을 하는 모습은 목포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목포에 시집가서 살려면 물받는 싸움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은 하나의 격언

처럼 되어 있었다. 60이 다 된 어느 부인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었다. 이 부인은 목포로 시집오기 전에는 비록 수도시설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풍족한 지하수로 물 걱정이라곤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목포로 시집온 후로는 하루도 물 걱정을 안 해본 날이 없었다. 가입한 공동수도에서 물이 안 나오면 이웃 동네에서 눈치를 보며 물을 받은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물이 끊어질까봐 물받는 순서를 두고 다투는 동안 ‘는 것은 욕뿐’이었다. 제한급수 때문에 밤마다 수도꼭지를 틀어 놓고 물소리 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선잠을 자다가 물소리가 나면 새벽 1시고 2시고 쫓아 나가 물을 탱크에 가득 받은 다음에야 잠자리에 드는 것은 아예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어 버렸다. 어쩌다 서울이라도 한 번 가면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길거리를 질주하는 차량들의 소음과 하늘을 뿌옇게 가린 매연을 보고, 돈주고 살라 해도 못 살겠다던 목포 사람들이지만 꼭지만 틀면 힘차게 쏟아지는 수도꼭지는 부러워하곤 했다. 이처럼 물의 지옥에 사는 목포 시민들은 한마디로 물에는 한이 맺혀 있다.



❖ 한국에서 제일 비싼 물값

목포 시민들이 이렇게 흑심한 물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수도물의 생산 및 보급의 절대량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바닷가에 위치한 탓으로 양질의 지하수와 지표수가 없어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까지도 모두 수도물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수원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물을 목포까지 끌어오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더구나 남아빠진 배관시설로 인해 누수율이 40%에 달해 수도물 값은 더욱 비싸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끌어 올 물이라도 풍족하다면 비싼 값으로라도 풍족한 물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목포 시민들은 수도물을 적게 쓰기도 수도물 값은 가장 많이 내고 있다. 수도물 값이 비싼 데는 취수원이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인도 있다. 지난날 상수도 시설용량 55,000m³/일 중 20,000m³/일은 나주호 계통의 물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취수원은 시내에서 약 70km나 떨어져 있어 이 물을 시내로 끌어 오는 데는 4개의 중간 가압장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래저래 물 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목포시의 상수도 역사는 갈증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목포시의 상수도 원년은 1911년으로 8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수원지를 만들어 160지구 8백여 명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 후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4개의 수원지를 더 만들었으나 절대량은 계속 부족했다. 그래서 1964년부터는 58km나 떨어진 나주 삼도리의 영산강 중류에서 매일 3만톤의 물을 끌어오기 시작했다. 이때의 1인당 1일 급수량은 120 l 였다.

그러나 지난 78년부터는 영산강 물이 극도로 오염되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 이후 대기오염이나 하천 오염 등과는 상관없이 무리하게 진행시킨 농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의 피해를 애매한 서민만이 톡톡히 본 셈이다. 영산강(나주 취수장) 물을 먹지 못하게 되면서 목포시민들은 한 동안은 이 취수장에서 12.6km나 떨어진 송현 저수지에 새로운 취수장을 설치하여 나주호의 물을 마시게 됐다. 그러나 나주호의 1일 공급량으로는 1인당 1일 250 l 를 공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때 당국은 73년부터 착공한 함평군의 대동제가 완공되면 1인 1일 250 l 의 물을 공급하여 다시는 ‘물의 지옥 목포’라는 오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시민들을 달랬다. 그러나 81년 12월 24일 대동제가 완공되고서도 시민들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계획대로 대동제에서 3만 5천톤, 나주호에서 2만톤을 취수하여 1일 5만 5천톤씩을 공급했지만 5월 7일부터는 대동제가 마르기 시작하여 급수량을 1일 1만 1천톤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고 29일부터는 완전히 고갈돼 다시 나주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나주호도 농지개량조합의 관계용수 부족으로 단수상태에 이르러 상수도원에서 제외해야 할 실정에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목포 시민들에게 다가 온 영산호의 소식은 하나의 꿈이요 희망이었다.

❖ 전남도민의 꿈 영산호

노령산맥의 골짜기 담양 추월산에서 발원한 영산강은 여러 개의 지류를 부채꼴 모양으로 거느리며 9개 고을, 장장 300리 길을 감돌아 목포 하구로 흘러내리는 강이다. 유역 면적은 28만 정보이고 그 중 6만 8천 정보가 논으로서 전라남도 전체 논 면적은 1/3이 강 유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영산강을 ‘우리의 젖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천혜의 자원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유역 주민의 걱정거리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 강 유역에 쏟아지는 강우량은 연간 35억 톤이나 되지만 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기가 일쑤여서 홍수의 피해를 주는 때가 많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강바닥이 드러나 가뭄을 걱정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이 강은 여름철 태풍의 진로와 일치하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때때로 해일의 피해를 주기도 했다.

영산호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영산강이 유역 주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계획되어 지난 80년에 중공, 강이 아닌 호수로 탈바꿈했다. 하구엔 길이 4.351m, 총 저수량 253.2백만 m^3 인 동양 최대의 하구엔 준공으로 유역에는 5천 5백 정보의 새로운 농지가 개발되었고, 전에는 뱃길로 다니거나 수백리 길을 돌아 다녀야 했던 목포와 영암이 육로로 연결되었으며 유역에 대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호수 ‘영산호’가 탄생했다.

개항 이후 80여 년 간을 갈증에 시달려 온 목포 시민들에게 이 영산호는 정말 벅찬 희망으로 다가왔다. 영산호는 바로 풍부하고 값싼 물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영산호 준공 이후 영산호를 목포시의 항구적인 식수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영산호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사업 내용은 1993년을 목포년도로 하여 1인 1일 평균 급수량을 330 l로 늘려 타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유지관리비를 절감시켜 저렴한 수도 요금으로 시민에게 급수할 수 있도록 영산호를 취수원으로 하는 120,000 m^3 /일 시설 규모의 상수도 확장계획이었다. 그 결과 타당성 조사는 긍정적인 것으로 회신이 왔고, 목포시 당국은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를 토대로 무안군 몽탄면에 취수장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영산강 상류에 주정공장이 세워진다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 소식은 목포 시민들에게는 시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그것이 주정공장이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도를 더해 갔다.

❖ 기억에 생생한 아령이

목포 시민들에게는 아령이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심오륙년전만 하더라도 공해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깊지 못했고 당시에는 삼학소주와 보해소주의 주정공장이 시내 한복판에서 버젓이 가동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수는 정화되지 않은 채 바닷가로 흘러 들어갔다.

당시의 상황을 초대 영산호보존회 서한태 회장은 이렇게 회고한다. “나는 등하교 길에 항상 주정공장에서 흘러보내는 주정공장 폐수가 흐르는 도랑을 통과해야만 했다. 이른 아침 등교를 하다보면 언제나 새까만 도랑에서 진한 갈색의 물이 김을 모락모락 내면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 도랑을 지날 때면 항상 한참 전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숨을 참은 채 한참 동안 재빨리 뛰어가서 몰아쉬 숨을 내뿜곤 했다. 어찌다가 숨을 잘못 쉬어 그 냄새를 맡게 되면 역겨운 기운이 한참 동안 가시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것을 직접 보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끔찍한 생각이 든다.”

현재 주정공장 폐수는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공해의 원천이다. 주정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전분질 원료 및 당질 원료를 주정 발효시킨 후 증류기에서 주정분만을 추출하고 남은 것으로서 유기질 함량이 대단히 높은 폐액이다. 참고로 공해 추방 투쟁과정에서 목포 시민들이 주장한 주정공장으로 인한 오염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주정공장에서 나오는 폐액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높은 유기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가면 산소와 결합하여 다시 부패작용이 일어난다.
- ② 부패하면 악취를 발생하고 부패 과정에서 유독성 아황산가스를 발생하며 산소를 소모하게 되므로 산소부족으로 물고기도 폐사하게 된다.
- ③ 폐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미생물의 처리 조건이 나쁠 때나 처리 시설이 고장 날 때에는 주정공장에서 폐액을 그대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
- ④ 공해처리 시설을 하여 환경보존법상의 배출 허가기준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량의 한계치에 불과할 뿐 배출 허용기준 이하의 부유물질이 쌓이고 쌓이면 다시 부패하게 된다. 따라서 공해 처리(유기질 처리)는 완벽할 수 없다.
- ⑤ 이러한 유기질 폐액이 호수로 들어가게 되면 물이 오염되어 식품위생법상 음료수로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이 주장은 목포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가 흘러나온 지 보름 만에 영산호 수질오염방지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이 단체는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이전에 이미 정보가 흘러나오자마자 바로 공해추방 활동을 전개해 왔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볼 싸움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포 시민들의 공해추방투쟁은 실로 신속하고도 기동성 있게 전개되었다.

❖ 목포 시민들의 뼈아픈 경험과 반성

목포 시민들은 외지 사람들에게 ‘삼학도를 구경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곤혹스러운 빛을 감추지 못한다. 삼학도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는 삼학도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지금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는 삼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삼학도는 목포의 눈물만큼이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학도가 육지와 연결된 이후 삼학도의 역사는 수난의 역사였다. 육지와 연결된 초기만 하더라도 삼학도는 학생들의 백일장을 여는 장소로서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위락 공간으로서의 제몫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계속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하던 사람들은 삼학도의 허리를 깎아내서 제분공장을 지었고 석유 저장 탱크를 세웠다. 그리고는 어느새인가 그 깎아진 허리를 타고 사창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추억 속의 삼학도로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결국 무책임한 행정관료와 사사로운 이익에 급급한 자들이 결탁하여 목포 시민들에게서 삼학도를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지금은 삼학도를 살리자는 캠페인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본래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기억은 삼학도만이 아니다. 목포가 항구임에는 틀림없지만 선창가에 나가보면 항구 특유의 시원스런 경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눈앞에는 우중충한 3층 건물이 도열해 있고 파란 물과 뱃고동을 울리며 떠나는 여객선과 하얀 갈매기는 그 너머에서 외롭게 놀고 있다. 그 건물에서 버리는 쓰레기와 그 건물로 인한 답답함 때문에 목포는 ‘지저분한 도시’라는 또 하나의 오명을 갖고 있다. 목포와 그 주변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관광객들이 대하는 곳은 흥도나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잠깐 들르는 선창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목포 시민들의 쾌적한 위락 공간이 사라져 갔고 또 한편으로는 국토개발과정에서 계속 소외돼 왔다. 해방 당시 손에 꼽을 정도였던 목포가 현재는 전국 도시 중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의 명백한 증거이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지역사회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갈 사람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민들이지 임기를 채우면 떠나가는 행정관료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더 명백해졌고 그 동안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려는 노력을 너무 소홀히 해 왔다는 자각’이 싹텄다.

❖ 국제봉사클럽협의체와 지역단체협의회

6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지역 유지인 기업가들이 앞장서서 일해 왔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유지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적극적 행동은 둔화되었다. 이는 모든 정치권력은 일부 소수의 특권계층이 틀어쥐고 있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당시의 암흑과도 같은 유신정권의 반민주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실례를 들면 700리 바다의 뿔 속에 몇 백년 동안 잠겨있던 신안 보물선을 인양했을 때 그 고귀한 유물들이 정작 보관되어야 할 목포를 떠나 서울로 실러가는 것을 보면서 내 고장에 해양박물관이 생겼으면 하는 시민의 뜻을 모은 분들이 구체적인 추진운동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건의문까지 만들어 기존 유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적이 있었다.

박물관 유치를 소망하는 많은 분들이 상공회의소에 모여 결의를 하고 건의문을 올리려 할 때 유지라는 사람들은 혹 불가능한 것을 건의했을 때 웃어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나 않을까 지레 겁을 먹고 작성된 건의문을 발송치도 못하고 말았었다. 시민의 소망마저도 유지들은 앞장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무렵의 목포의 분위기는 시민의 소망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가 뜻깊은 제안을 하거나 받기라고 하면 ‘재가 뭘데’ 하는 식으로 덮어 놓고 묵살하였고 그러면 으레 추진하던 일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혹 웃어른의 심기를 괴롭히는 결과가 되어 자신의 사업이라도 망할까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 정당한 요구는 전달될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74년 국제봉사클럽 회장 총무들이 모여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일이 있을 때 국제봉사클럽이 발기인이 되고 추진 단체가 되기로 하였다. 그런데 국제봉사클럽에서 종전에 유지들이 하던 일을 대신해서 하게 되자 이번에는 또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말이 많게 되어 결국 상공회의소, 국제봉사클럽협의회, 예총, 개발위원회 등 4개 단체의 각 단체에서 대표 5명을 선출하고 사무직원 11명을 확보하여 사무직원 11명을 포함한 24명이 매월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는 목포지역단체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지방자생조직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공해추방운동처럼 주민운동의 차원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목포의 경우도 국제봉사클럽협의체나 지역단체협의회 존재는 공해문제에 기동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존의 조직적인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운동의 지도부로 부상하여 운동을 이끌어갔다.

2. 진로 주정공장의 추방

(1) 서막-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의 탄생

‘영산호를 살리자!’는 기치 아래 전개되었던 목포 시민들의 공해추방투쟁은 시민들 스스로가 이 싸움과정을 초반전, 중반전, 종반전으로 부르듯이 홍보와 조직, 동원 등의 활동에서 하나의 전투를 방불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도 편의상 진로 주정공장추방과정을 서막(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의의 탄생), 초반전(배출시설 설치불허 정), 중반전(환경청의 번복), 종반전(시민의 승리) 순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진로 주정공장 추방운동의 서막은 82년 10월 3일 진로측이 주정공장 이전 신청을 내면서 열리게 된다. 진로 주정공장은 73년부터 제주도에 있는 (주)천마물산의 시설을 임대하여 공장을 가동해 오고 있었다. 그동안 주정공장에서 버린 폐수와 고구마 찌꺼기가 제주도 제주항 근해 어장(전북, 소라, 미역)을 오염시켜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오염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고 제주도 당국으로부터 공해업소로 지정됐었다. 이와 더불어 시설의 노후화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 (52년 중공)과 함께 82년 9월 30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82년 10월 1일 가동을 중지하고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영산강의 지류인 몽탄강 상류 영산포 삼영리로 결정하고 10월 31일 이전허가 신청을 냈다. 물론 여기에는 보해가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의 소주시장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했다.

그러다 대다수 유역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소수의 인사들만이 정보를 독점한 채 막후교섭의 형태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는 막후교섭이 아닌 광범위한 주민운동으로

그러나 공해추방싸움의 과정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듯이 소수에 의한 막후교섭이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해추방은 오로지 광범위한 주민운동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목포시의 단체들은 환경청장, 전남도 지사 등 9개 당국에 반대 건의문을 발송했으나 모두가 허가권자인 전남도 지사에게 위임되었다는 회답만을 보낼 뿐, 대책을 세우는 데는 하등의 도움도 주지 못했다.

그리고 전남도지사도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상 자신의 재량권은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후 83년 5월 20일에는 목포시 대표, 금성시 변영회장, 목포시장, 금성시장, 전남대 교수, 조선대 교수, 환경청 직원 등 17명이 모여 목포시 대표가 주정공장 설립반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금성시 대표의 입장등이 개진되었으나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공해 피해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막후교섭에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결론이 내려지기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기 쉬우며 설령 주민들을 염려하는 입장에 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의 회합은 무책임한 말만 무성할 뿐이다. 이 당시 사계의 전문가로 알려진 교수들의 모임도 있었으나 이 모임에서는 ‘공해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결론이 났다. 하나의 호수, 그것도 동양 최대의 호수인 영산호의 오염에 대한 평가는 면밀하고도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정공장은 영산호의 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한 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회합이 진행된 결과이다.

❖ 소신없는 어용교수의 결정이 큰 뜻을 그르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포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가 흘러나온 것은 목포 경찰서 정보과 형사에 의해 영산호보존회 초대회장 서한태 박사에게 알려진 83년 6월 15일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아주 긴박한 것이었다. 지방대학 일부교수들은 “주정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영산호는 크게 오염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도지사도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주정공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정보과 형사의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 주정공장이 들어설 장소는 목포 시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래의 취수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몽탄강 상류의 영산포 삼영리라는 것이었고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12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보수하고 있고 폐수처리 시설도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공장에서 배출될 예정인 폐수는 자그만치 하루에 약 2700톤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 활동이 미미한 조직도, 없는 것 보다는 유사시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서한태 박사는 주정공장 설치반대는 소수인들의 막후교섭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범주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방운동을 신속하고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당시 자신이 소속돼 있던 ‘청호 라이온스클럽’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6월 17일 ‘국제봉사클럽협의체’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회의 때 가지고 갈 결의문 작성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6월 17일 하오 5시 YMCA 2층에서 국제봉사클럽협의체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석상에서 목포시의 상수원인 영산강 상류에 주정공장이 세워진다는 것이 거론되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흥분되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웬만한 목포 시민이라면 옛날 산정동의 주정공장에서 흘러보냈던 아랭이(주정공장 폐수)의 악취에 인상을 찡그리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주정공장의 폐수는 모두가 고개를 내젓지 않을수 없는 문제였다. 목포 시민들이 작성한 유인물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주정공장은 흡사 하나의 화약고처럼 받아들여졌고 공장폐수는 독약으로 받아들여졌다.

주정공장 설치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곧 바로 옛날의 어두운 기억들을 되살아나게 했고 회의장의 분위기는 성토대회로 바뀌어갔다. 한마디로 “주정공장 설치는 죽어도 안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정이었다. 청호라이온스클럽에서 준비해 간 건의문도 문맥이 너무 약하니 더욱 강력한 것으로 작성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정도로 회의장의 분위기는 참으로 열띤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주장공장 설치를 결사 반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절차상 국제봉사클럽협의체, 상공회의소, 개발위원회, 예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와 요로에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해산했다. 건의문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우선 청호라이온스클럽에서 미리 작성해 온 것을 보내고 앞으로 계속 다듬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당일로 발송했다.

❖ 영산호 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의 탄생

앞서 소집한 지역단체협의회는 바로 다음 날인 6월 18일에 회의를 개최한다. 상황이 급해서 18일 오전에 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나 갑작스런 소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회원이 참석했다. 이 회의도 분위기가 폭발 직전의 숙연한 분위기였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무척 애를 썼고 시 당국에서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남도에 상실했으며 시개발위원회의 노력도 있었으나 사계의 전문가로 알려진 교수들의 모임에서 목포 시민들에게 불리한 의견이 피력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먼 훗날을 위해서도 심의에 착수했던 교수들의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말도 튀어 나왔고, 영산호에 대한 오염평가는 면밀하고도 장기적인 과학적 기초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주정공장이 영산호에 영향을 미치느니 안 미치느니 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는 등의 말이 오고 갔다.

이 회의는 흥분되었던 분위기를 가라앉힌 다음 “이 문제에 대한 대처는 범주민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설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오늘의 이 모임을 발기인회로 간주하고 최단기일 내에 창립총회를 갖자”는 것을 결의한 다음 이의 준비위원으로 4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주민운동에서의 상설기구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민운동에서는 연대감이나 실천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속성이다. 주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은 한결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해문제와 같이 평생을 두고 전개해 나아가야 할 주민운동에 있어서는 지속성의 문제가 더욱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상설기구는 주민운동에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또한 역으로 생각하면 이 상설기구의 탄생은 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설기구의 탄생은 그 자체가 주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열정비라는 의미를 갖는다.

창립총회를 위한 4명의 준비위원들은 준비 작업을 일사불란하게 진행시켜 23일에 창립총회를 갖기로 합의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역전 육교에 플랭카드를 걸기로 했다. 그리하여 21일 “영산호를 오염시키는 어떠한 시설도 우리는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랭카드가 역전 육교에 걸림으로써 주정공장 설치 반대 싸움의 포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시작되면서 주정공장 설치반대는 하나의 추방운동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당시에 소집되던 각 모임에서도 영산호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6월 21일에는 재목(在木)라이온스클럽 신·구 총무, 회장단의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영산호의 문제가 농도깊게 거론되었으며 결의문 채택과 함께 한 클럽에서 두 개씩 열 여섯 개의 플랭카드를 걸기로 결의한 후 바로 실천에 옮겼다. 그리하여 23일에는 시내 요소요소에 플랭카드가 나붙기 시작했다. 플랭카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영산호를 오염시키는 어떠한 시설도 우리는 결사반대한다” “영산호를 오염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23만 시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영산호는 우리의 생명수이다. 오염행위는 결사반대한다.”

6월 23일에는 드디어 근로자회관에서 상설기구 창립총회가 열렸다. 아직도 홍보활동이 미흡했던 관계로 경과보고의 형식을 빌어 참석자들에 대한 홍보를 곁들이면서 진행된 이 총회에서는 80여 명의 참석자 전원이 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를 만들어 범주민 운동을 전개하자고 결의했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산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어떤 시설도 좌시하지 않는다.
- 23만 시민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것은 살인행위로 간주,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 영산호 수질보전을 위해 온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수질 보호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영산호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준다.
- 영산호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에 23만 시민이 총력을 경주한다.

(2) 초반전 -배출시설 불허결정-

❖ 뿌리내리는 주민운동

상설기구가 탄생한 다음 날인 24일부터 목포시는 흡사 무슨 일이 금방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목포시의 중심가인 오거리를 비롯하여 항만 여객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2호 광장, 구법원 앞 등지에서 국제봉사클럽회원들을 중심으로 가두서명을 벌이는 한편 “영산호 환경을 보존하자”는 내용의 리본을 달아주고 유인물을 살포하였으며 국제봉사클럽협의체의 각 단체들과 상공회의소, 개발위원회, 예총 등의 단체가 지역별로 분담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은 계속 추진되어 다음 날인 6월 25일에는 9,000명 27일에는 11,000명이 서명했다. 특히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장소의 뒷 벽에는 플래카드를 걸어놓음으로써 공해를 기어 이 추방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하였다.

유인물은 대량 살포되었다. 유인물은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 만큼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제작해서 나누어 주었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가두방송까지 곁들여 입체효과를 내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이렇게 전개된 공해추방운동은 그동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눌러 참아야 했던 시민들의 입을 열게 했고 그 소리를 함성이 되어 메아리쳐 갔다.

24일 오후 2시에는 시내의 약사들이 모여 “수질오염은 우리 약사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도 시민 계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위원장단은 각 단체들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조직 정비작업과 기관 방문 등을 추진했고, 자체적으로 유인물 살포와 리본달기를 전개해 나갔다.

25일에는 남일극장에서 6·25기념행사가 있었고 거기에는 관제동원으로 모인 1,000여 명의 참석자가 있었다. 위원장장은 이 모임에도 찾아가 그들에게 직접 리본을 달아주고 유인물도 함께 배포하였다. 그러자 이 광경 지켜보던 뜻있는 부녀들이 “우리가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이 때 위원장장은 얼마나 가슴뭉클했는지 모른다.

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 내 고장에서 공해를 추방하고 사람답게 한 번 살고픈 간절한 염원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만으로, 기관의 눈총과 관계 언론의 냉대에서 굴함없이 굳세게 싸워온 회원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주민운동이 진일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서명운동, 리본달기, 유인물 살포작업은 시민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어 갔고 6월 27일부터는 본격적인 가두방송이 시작되어 홍보활동에서도 진일보해 갔다. 특히 가두방송은 낭랑한 목소리로 호소력있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시민들을 흥분시킬 정도였다.

한편 영산강 오염방지대책위원회는 6월 28일 근로자회관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으로는 기획, 총무, 홍보, 동원, 학술 등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다짐했다. 특히 학술부분은 공해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흔히 공해문제가 야기될 때 주민들이 듣는 내용은 어려운 용어를 나열한 끝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든지” “피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일 뿐이었다. 주체적으로 조사하여 어떠한 결과를 얻지 못한 이상 언제나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다.

목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진로측은 주정공장이 폐수처리시설만 갖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선전을 계속했고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러한 선전에 넘어 갔을 것이다. 이 사항은 뒤에 진로측과의 공방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또한 기획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월말이나 다음 달 초에 대통령의 방문이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앞으로 2일간을 고비로 생각하고 가두방송, 서명운동, 리본달기에 가일층 노력하기로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동원체계를 확립할 것을 결의했다.

❖ 진로의 만행을 규탄한다.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운동을 추진해 나가던 중 6월 30일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진로측이 확산되어 가던 주민운동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광주일보에 대문짝만한 크기로 해명서를 발표했던 것이다. 이 내용은 마치 영산호 오염방지대책위원회가 시내 모 양조업자의 앞잡인 것처럼 발표됨으로써 목포시민들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정공장 폐수가 영산호의 오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식이었다.

영산호 오염방지대책위원회에서는 즉시 반박 성명서를 만들어 다음날 광주일보를 찾았다. 그런데 엉뚱한 것은 보통 때면 40~50만원이면 가능한 광고료를 최고의 액수인 880만원이나 달라는 것이었다. 진로측이 이미 880만원을 지불하고 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본력있는 대기업의 무자비한 횡포였다. 그래서 위원회는 차라리 그 돈의 100분의 1만 가지고 몇 만장의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유인물을 만들어 살포하였다.

이러한 진로측의 행동은 목포시민들에게는 하나의 만행으로 비쳤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박문도 아주 통렬한 어투로 일관했고 진로측의 공해무관, 고용·세수증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반박문에서는, “진로측 주장에 의하면 공장에서 흘러보낸 물이 깨끗한 물이어서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데 맑은 물 같으면 왜 버리는가?

그 물을 다시 정수해서 쓰면 될 것 아닌가? 진로특이 별소리를 다 해도 못 믿겠으니 그 ‘깨끗한’ 폐수를 사장이 마신다면 믿겠다.”고 하면서 그 누가 보아도 옳은 일에 나선 사람들의 당차고 패기있는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선전전에서는 내용에서의 객관성 유지와 간결하고 평이한 선전방식을 통해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해 나간 모범을 보여 주었다.

❖ 언론기관의 추태

한편 이렇게 공해 추방을 위한 싸움이 간단없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이번에는 각 중앙 일간지가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23일 영산호오염방지대책위원회 탄생 직후에는 목포 시민이 영산호의 오염방지를 위해 꺾기하고 나섰다는 내용이 게재되었으나 26일로부터는 마치 이 싸움이 목포시와 금성시의 싸움인 것처럼 오도하는 내용을 다루어 게재하기 시작했다.

6월 26일 경향신문에 “진로 주정공장 가동 싸고 맞서 목포시민 반대, 금성시민 환영”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린 이후로 각 일간지들은 목포 시민이 오염방지를 위해 꺾기했다는 기사가 차지했던 면보다 몇 배나 더 되는 지면을 할애하며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기사의 표제도 가지각색이었다.

“영산호에 때아닌 술 소용돌이(동아일보 6월 30일), 금성시내 진로 주정공장 가동 싸고 목포·금성 주민 맞서(한국일보 6월 30일), 진로 주정공장 가동 싸고 목포·금성시민 찬반대립(조선일보 6월 30일) 등등 목포 시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공해추방운동은 하루 아침에 술 소용돌이 내지는 지역간의 싸움으로 전락해버렸다.

물론 당시에 금성시에서는 “진로 주정공장 금성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공인협의회와 나주 군민 대표 30여명이 모여 29일 오전에 춘광예식장에서 꺾기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실상은 중앙 일간지의 내용처럼 금성시 시민 대 목포시 시민의 대립은 아니었다.

나주 시민들에게는 나주 비료공장으로 인한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 나주 비료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주 군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공장이 들어선 이후 수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공장이 이 지역에 들어선 이후 나주 군민들에게 돌아 온 것은 비소로 인한 토양오염이었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셈이다. 그래서 나주 군민들도 대다수는 주정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모 국회의원과 소수의 상공인 그리고 눈 앞의 세수증대에만 눈이 먼 일부 행정관료들이 주정공장의 설립을 환영하는 의사를 나타냈을 뿐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유치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채 중앙 일간지들은 금성사에서 나온 유인물만을 기초로 하여 추측기사를 무책임하게 휘갈겨댄 것이었다.

창간 기념일이나 신문주간만 되면 언론의 책임이 어떻고 지금까지의 언론의 역할은 이랬다는 식으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여 떠들어대던 언론이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몇 십만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실을 오도했다는 것은 실로 커다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 한 시민은 사회의 공기라는 언론이 공기가 아닌 공해의 원천으로 전락해 버린 느낌이 든다며 분노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영산호 보전회 초대회장 서한태 박사는 공해문제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일화를 상기시켜 주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쯤에 모 목포시장이 일본에 가서 일본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해산업이라도 좋으니 목포에 공장을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었다. 이 목포시장의 말은 당시 공해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해왔고 그래서 공해추방에 열을 올리고 있던 일본인들에게는 하나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신문지상에까지 대문짝만한 크기로 게재되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신문을 시장이 가지고 와서 목포시의 유지들에게 자랑삼아 내보였고 지방유지들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공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해만 충족되면 된다는 몰지각한 기업인의 표상을 보는 듯한 일화였다. 그러면서 서한태 박사는 지금의 금성시가 어찌면 10여년 전의 목포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씩씩해 했다.

❖ 승리로 끝난 초반전

이와 같은 진로측의 공격이나 일간지의 추태는 공해추방운동을 주춤거리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더 필사적인 공해추방운동을 전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직정비와 가두서명운동, 가두방송, 각 가구에 유인물 살포하기 등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자 7월 1일경 도지사로부터 “유역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 제발 조용히 있어달라”는 연락이 왔다. 이에 7월 2일과 3일은 잠잠하게 지내고 있던 차에 7월 4일 “배출시설 설치를 불허한다”는 도지사의 결재가 났다는 소식이 왔다. 설치할 경우 현재의 영산강 오염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영산호는 담수호로서 오염물질이 누적될 경우 유기물질이 쌓여 *부영양화와 **적조현상이 나타나는 등 영산강 하류지역 주민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동안 목포시민들이 주장해 왔던 바가 주민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하여 관철되었던 것이다.

* 강이나 호수에 생활하수(대표적인 것 합성세제)나 공장폐수 또는 비료나 유기물질 등에 의해서 물 속에 영양염류인 질소나 인 등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태양광선을 받아 단세포의 물풀이나 식물성 플랑크톤, 대형의 수중 식물 등이 폭발적으로 증식된다. 겨울철이 되면 식물이 줄게되어 하천이나 호수에 침전되며 그것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등을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점차로 영양염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영양염류의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 계획적으로 영양염을 제거해야 한다.

** 바닷물이나 강물이 갑자기 붉게 물드는 형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고기들이 수면에 떠오르고 양식 중인 수산물이 폐사하게 된다. 해수가 공장폐수나 유기물질에 오염되어 유독성분을 지닌 적색 플랑크톤이 갑자기 번식하기 때문이라는 학설이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3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은 1년에 한 두 차례 발생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마산 앞바다의 물은 항상 붉은 빛을 띠고 있어 1년 내내 적조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며 84년에는 인천 앞바다에서도 처음으로 적조현상이 나타나 사람들을 긴장시켰었다.

(3) 중반전 -환경청의 번복-

❖ 운동지역 확산과 조직정비의 노력

배출시설 설치불허 소식을 접한 목포 시민들은 곧바로 공해추방운동은 영산호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 주민들도 이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운동의 확산에 주력했다. 사실 영산호의 오염은 목포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산호 유역 주민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였고 또 영산호 유역 주민 모두를 이 싸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진로 주정공장 추방싸움이 앞서 지적했던 바처럼 지역 간의 싸움인양 오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위원단장은 연락하기가 비교적 쉬운 무안, 함평, 영암, 해남 등 4개군의 의사와 평통 위원들에게 7월 5일과 6일 양일 간에 걸쳐 지역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전화로 연락했다. 그리하여 7월 7일에는 위 4개군의 주민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질 수 있었다. 7월 7일 3시에 열린 이 대책회의에서는 앞으로 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산하고 그 대신 무안, 함평, 해남, 영암 등 4개군을 포함한 영산호유역환경보존위원회를 탄생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대책회의를 발기인 총회로 간주하고 준비는 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 위원단장에게 일임한다는 결의를 한 다음 해산했다. 장차 나주군과 금성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었지만 당분간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영산호유역환경보존위원회의 탄생은 위원장단 내의 의견 불일치로 늦어졌다. 7월 7일 대책회의 이후 8월 7일까지 한 달간은 주로 조직정비 작업으로 보내면서 소강상태를 유지했는데 그 이유는 배출시설 불허조치가 난 후 금성시 일각에서 상공인 등이 흥분될 조짐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 달라는 전남도 지사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였고 한편으로는 조직 구성 문제에 대한 위원장단 내의 의견 불일치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의견 불일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집행부 구성문제였다. 의원장단 일부에서는 환경보존위원회의 조직은 자발적인 지역기구인 만큼 그 조직은 철저하게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 래야만 참여한 사람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 따라서 강력한 체제로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서 환경보존위원회의 조직은 회원제를 바탕으로 하고 회원 10~20명에서 한 사람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이 대의원 중에서 집행부를 구성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직을 회원제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목포시민 전체가 회원인데 그 무슨 회원제가 필요하느냐고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사실상 조직의 의의와 역할마저도 몇몇은 부정하려 들었고, 조직을 개방하고 비례대표제로 할 경우 종교계와 학생 등 진보적인 세력도 환경보존위원회에 참가할 것을 두려워한 일부 친여 인사들에 의해 이 제안은 거부되었다. 이들이 이 제안을 거부한 데는 만약 비례대표제로 집행부를 구성할 경우 회원수가 적은 상공회의소, 평통 등의 힘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싸움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정리하고 연구할 사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운동에 헌신적이며 활동적인 젊은 사람을 상근직원을 두자는 안도 제출되었으나 일부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대서(代書)나 할 정도면 된다는 식으로 맞서는 바람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공해추방 주민운동의 경우 직접 업무를 담당한 집행부는 자신이 하나의 감투를 썼다는 것에 위안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기 보다는 한 사람의 심부름꾼이자 주민운동을 이끌어 나가 는 지도자로서 끊임없이 투쟁방법과 계획을 개발해 나가야 하며 때로는 온갖 회유와 협박도 감당해 나가야 한다. 주민운동 조직은 조직 전체의 내용이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형성되고 그 조직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환경보존위원회 결정과정에서 벌어진 의견 불일치는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고 이에 따라 회칙이 만들어졌다.

❖ 계몽과 회원의 확산

그러나 이러한 소강상태 하에서도 앞으로 주민운동이 건전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한 다각도의 분석, 검토 작업은 계속되었다. 8월 13일 YMCA 회관에서 열린 국제봉사클럽협의회 월례회 석상에서는 왜 영산호유역환경보전위원회를 빨리 탄생시키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준비위원들에게 대한 항의가 있었고 빨리 탄생시키라는 촉구 결의까지 있었으며 보전회가 탄생될 경우 우리 봉사클럽은 전 회원이 적극 참여하자는 결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 회의 석상에서는 아직도 영산호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감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설문지를 통해 시민을 계도하자는 결의가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설문지란 사람들의 의식상태를 종합해 보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훌륭한 계몽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봉사클럽에서는 주로 후자의 취지에 맞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작업을 실시했다. 너무 의도가 뻔히 드러나 좀 거칠다는 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목표로 하고 있는 계도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 주었다.

한편 회원 가입도 순조로이 진행되어 의료업계인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약협회 등이 회원 가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뜻을 비쳤다. 이 때까지만도 종교계에서는 공해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목포시찰회에서는 “내땅이 죽어간다”는 제하의 공해문제 인식을 위한 강연회를 계획했다. 이 강연회는 7월 24일 목포 양동교회당에서 열렸는데 연사로는 전 연세대 교수였고 기장 선교교육원장으로 있는 서남동 목사(주제: 환경문제와 교회의 사명) 중앙대 교수이며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이사인 유인호 교수(주제: 공해는 추방될 수 있다)가 초청되었다. 이 강연회는 종교계에 공해문제를 인식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고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그 후 종교계가 공해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종교인들의 공해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는 그간 분투해 온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

❖ 이해할 수 없는 환경청

그러나 이러한 진전이 있었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주정공장 측에서 7월 27일 환경청에 소원을 제출 했고 그것이 심의 중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판정은 전남도 지사가 월권행위를 했다는 찬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 판정이 8월 8일에 결정됐었는데도 유역 주민은 물론 환경보전회의 집행부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집행부 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8월 19일이었고 유역 주민들은 8월 25일 경향신문 사회면에 “환경청에서 도지사의 설정이 반복되었다”는 기사가 실린 후의 일이었다. 이 소식은 환경청의 결정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기는 어렵다는 소식과 함께 전해졌다. 환경청의 결정 요지는 “법적인 허가 요건을 갖춘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공장가동을 하겠다는 것을 공해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방지시설의 설치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환경보전위원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환경청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첫째, 전남도 지사는 20여일 내에 처리해야 할 민원서류를 반년이 넘도록 끌면서 심사속고한 끝에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불허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런데 환경청이 유역 주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를 현지조사도 없이 몇 장의 서류만을 보고 10여일 만에 졸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환경청의 처사는 50만 주민의 생존권보다 1개 기업의 이유를 중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환경청 스스로도 82년 10월 20일 4대강 중에서 영산강의 오염도가 가장 심하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기존 공해 업소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하고 공해시설을 철거시키거나 소량의 공해를 배출하는 업체라고 신규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원칙인데 엄청난 공해를 주정공장의 설치를 인가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처사이다.

셋째, 현재 목포시는 120억 원의 세계은행 차관을 들여와 영산강에서 식수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8월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취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머지않아 몽탄강이 목포시의 상수원이 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상수도 보호지구로 확정되어, 일체의 공장 설립이 중단되는데 서둘러 현행의 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은 1개 기업의 이해에 환경청이 이끌려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넷째, 환경청은 현행 보존법상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의 생존권은 어떠한 법에도 우선한다. 법이 문제라면 법 개정을 위한 싸움도 불사하겠다.

다섯째, 우리는 장성의 고려시멘트가 보여준 공해문제의 실상을 너무도 분명히 지켜 보았다. 장성 시민들이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동안 수없이 진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은 그 정도로도 괜찮다는 듯이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방관만 하고 있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싸울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청에 대한 반박이유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공해추방문제는 유역 주민들이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문제였고 환경청의 반복은 오히려 약간의 소강상태에 빠져있던 공해추방운동에 불을 당겼다.

(4) 종반전 -시민의 승리-

❖ 전열정비

19일 환경청의 번복결정이라는 소식에 접한 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모임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영산호유역환경보전위원회를 탄생시켜 전열을 정비하고 더욱 더 적극적인 주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하여 8월 23일에는 근로자회관에서 ‘영산호유역환경보전위원회’의 창립 총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시민들도 8월 25일 경향신문에 환경청의 불허조치 번복 기사가 난 후로 다시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8월 27일 오후 2시에는 의사회관에서 이사회 모임을 갖고 “이제 전시체제로 돌입했으니 모든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서 조직상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집행부 내부 뿐만이 아니라 시민 각층에서도 활발히 일어났다. 7월 24일에 있었던 서남동 목사와 유인호 교수의 강연을 통해 많은 종교인들이 감동을 받아 8월 30일에는 기독교로 장로회 시찰회가 영산호 오염방지운동에 동참하였다. 곧 이어 9월 2일 오후 6시경에는 한 때 주먹을 휘두르며 놀았던 청년 40여명이 모여 “우리도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도 임무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선한 사람도 때리며 살아 왔는데 지난 날을 속죄하는 뜻에서라도 이번 주민들의 생명수를 지키는 일에 나서겠다”는 식의 험악한 말까지 오갔다. 그리고 이 날 오후 8시에는 만호동의 유지들이 서명운동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한편 9월 5일에는 목포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영산호 환경보전에 적극 나섰다. 목포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공해추방운동을 방관한 채 사회정의나 복음을 말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스스로 ‘영산호오염방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공해추방운동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카톨릭계에서도 신부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9월 18일에는 사도회 연합회가 “우리도 영산호의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후 궤기대회가 준비되면서부터는 불교계에서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주민운동을 위한 정열은 다듬어져 갔다.

한편 초반전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부터 시민들 가운데는 마치 위원장단이 시내 모 주정공정의 앞잡이라는 식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두 사람도 못 건나가서 뜻있는 시민들의 빈축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분이 아닌데 “칼맛을 소리 하지 마라”는 식의 반박을 받아 확산되지 못했다. 그런데 진로측은 선전이 있고부터 좋지 않은 유언비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집행부측은 이러한 것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협조문을 만들어 뿌렸다.

애향시민의 협조를 바랍니다!

뜻이 있는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다 「영산호 상류에 주정공장이 설치 되어서는 안된다」고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좋던 나쁘던 따라야 한다」느니
 심지어는 「주정공장이 생겨도 우리의 상수원에는 큰 지장이 없다」느니
 하면서 우리 시민을 오도하는 분이 더러 있는데 이런 분을 발견하는 즉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발간할 「영산호」라는 잡지에 주정공장이 서도 좋다는 분의
 명단을 공개하여 먼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합시다.
 우리는 역사를 의식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행동합시다.

알리는 곳 : 목포시 무안동 2가 6(의사회관 내)

영산호유역환경보전위원회

또한 집행부는 외지에서 손님이 오거나 염탐꾼이 오더라도 먼저 서비스업소에 들릴 것이
 예상되니 우리의 굳은 의지와 단결력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다방과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
 용업소에서 리본달기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해추방운동은 이렇게 빈틈없이
 정력적으로 진행되었다.

❖ 기획위원회와 집행부의 활동

9월 6일에는 의사회관에서 기획위원회가 소집되어 앞으로는 가급적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도 그 계획대로 추진시키기로 하여 3단계로 나눈 계획표를 작성했다.

1단계는 리본달기, 플랭카드 달기, 탄원서·건의서 보내기, 청원서 서명운동, 회원모집, 설
 문지를 통한 계몽활동 등이었고 2단계는 서울에 대표단 파견·각계 방문, 공청회 개최, 국
 회에 청원서 제출, 동원체제 정비, 각 군과의 협조체제 구성 등이었으며, 3단계는 시민궐기
 대회의 순이었다.

이 계획대로 대표단은 9월 8일 서울로 출발하여 9월 9일 지역구양 국회의원과 면담한 후
 환경청에 들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어 국세청에 들러 앞으로 우리 주민의 뜻을 참작해 줄
 것을 부탁했다. 대표단이 환경청에 갔을 때의 일이다. 환경청의 한 환경전문가는 대표단에
 게 어려운 학술적 용어를 써가며 대표단의 기를 꺾으려 했다. 그 환경전문가는 대표단에게
 BOD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는 등 여러 말을 해대면서 대표단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때 서위원장은 “우리는 그런 어려운 것은 잘 모른다. 딱 잘라 말해서 주정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영산강을 오염시키겠는가 아니면 들어서지 않는 것이 좋겠는가”하고 물었다. 그러자 최수일 환경청장은 “아무래도 공장을 세우지 않는 것이 오염되지 않고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위원장은 앞에 놓인 탁자를 사정없이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그러면 이제 말을 다 끝났다.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주정공장은 절대 설치할 수 없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환경청을 나왔다.

대표단이 국세청에 들른 이유는 주정공장 조업 재개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조업허가와 이 전허가를 내주어야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정보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장은 “주정공장보다는 시민의 상수가 중요하며 앞으로 유역 주민의 뜻을 깊이 참작하겠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또 대표단은 이날 오후 동아·조선·한국·중앙일보사에 들러 목포시의 사정과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목포에서 리본달기, 플래카드 달기, 서명운동 등으로 시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지사의 결정 마감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도지사는 환경청의 결정에 따라 9월 29일까지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9월 7일에 열린 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관청과 기업주에게 주민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궤기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재 마감일 전인 9월 25일(일요일) 1시에 근로자회관에서 공청회 및 궤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공청회와 궤기대회를 같이 열기로 한 것은 공청회일 경우 진로측과 시민 대표가 같이 참석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아 상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곧 바로 궤기대회로 연결시킬 계획이었다.

❖ 총궤기 계획

시민궤기대회의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이제는 공해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신교, 카톨릭, 불교계 등의 단체가 공해추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동원문제에도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궤기대회 시간을 1시로 잡은 것은 목사님들이 예배 후 신도들을 이끌고 오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말이 공청회 및 궤기대회라고 했지 실은 이 날의 행동을 통해서 한 판 승부를 볼 셈이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궤기대회의 유인물 1만장을 만들어 시중에 뿌렸다.

※ 공청회 (시민궐기대회)

한 기업인의 이권과 영산호 유역 50만 주민의 생존권이 대결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뜻있는 목포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때 : 1983년 9월 25일 (일요일) 오후1시
- 곳 : 근로자회관 (노동회관)
- 주최 : 영산호유역환경보전위원회

유인물의 내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궐기대회는 하나의 대결장으로 설정되었고 시민 각계의 힘은 이 궐기대회를 향하여 모아지고 있었다. 9월 17일 기획위원회가 궐기대회를 갖기로 결의한 이후, 소극적인 태도를 떨쳐버리고 공해추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개신교측은 물론이고 9월 18일에는 카톨릭 사도회가 궐기대회 개최에 보조를 같이 하기로 가짐을 하고 나섰고, 9월 22일에는 보현정사 스님을 중심으로 불교계에서도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에다 향만노조원과 100여명의 국제봉사클럽 회원들도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어서 궐기대회 당일의 예상 동원 인원은 적어도 5,000명은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수용능력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근로자회관에 이토록 많은 인원을 동원하려 했던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날의 대회를 통하여 공해추방싸움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시민의 굳은 결의를 내보이자는 생각에서였다. 앞으로 시민의 식수로 사용될 수원에 폐수를 흘려보낼 주정공장 설립에 대해서 관(官)에서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또 설립당사자인 주정공장측도 공장을 세우겠다는 의지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것을 시민의 힘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 날 예정대로 대회가 개최될 경우 5,000여 명이라는 군중의 집회가 시위로 연결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이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인 곳은 정부기관이었다.

9월 22일 오후 7시 서한태위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위원회 대표들은 연락을 받고 시내에 있는 함흥냉면집으로 갔다. 그 자리에는 목포시장을 비롯하여 목포경찰서장, 검찰청 목포지원 검사장, 안기부 소장 등의 기관장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기관장들은 위원회 대표들에게 법테두리 내에서 일을 추진하라며 은근한 협박을 가해 왔다. 이에 대해서 서위원장은 “나는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아버님의 산소 앞에서 여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했다.(며칠 전이 추석이었다-편자주-). 지금 준법투쟁을 강요하는데 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관하는 법이라면 법개정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그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나중에 서위원장은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담담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또 뒤에서 성원해 주신 시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마음을 털어 놓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급해진 쪽은 기관장들이었고, 위원회측은 29일이 지사의 결재 마감 날이었기 때문에 29일이라는 마감일을 철회하면 위원회도 25일자 의 결기대회를 연기하겠다는 것을 제안하여 합의를 보았다. 그 다음 날인 23일 오전, 관계 정보기관을 통하여 29일의 결재 마감일이 무기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오자 위원회측은 시내 요소요소에 결기대회가 무기 연기되었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이 일을 잊은 뒤로 집행부는 시민들로부터 집행부가 너무 나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진로측과의 공방

이 무렵, 주정공장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가장 쉬운 일은 주정공장측이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진로 주정공장 사장에 대한 시민들의 편지보내기 운동과 위원장단의 사장면담 설득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어 호소력에 의해서 사장의 마음을 돌려 보려고 노력을 하는 한편 위 단장은 상경하여 사장과 수차 면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큰 성과가 없었고 상황은 결재가 날 듯 한 방향으로 치달았다.

그러던 중 10월 중순경 한 달 전에 진로측으로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신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 편지의 내용은 앞으로 시민들의 식수원이 될 영산호와 공해와의 문제는 거두절미한 채 배출시설의 완벽성만을 강조하여 선진국의 배출시설과 비교해 볼 기회를 드리겠다는 식으로 뜻있는 시민들의 속을 건들어 놓았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한주 씨께

보내주신 글 잘 받았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며 맥내에도 늘 밝음이 꽃피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간곡하신 지적과 같이 고향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해문제는 오늘의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목포의 경우처럼 오랜 시간 식수의 어려움을 겪어야했던 사정으로서는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 진로가 금성에 주정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착수했던 것이 12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소요로 하는 폐수처리시설이었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이 시설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속하는 시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목포 시민들께서 원하신다면 대표들을 선발, 이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유럽 등지의 선진국에 집적 모시고 가서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생각마저 지니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표명하시는 분도 있으나, 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우리 공장이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폐수를 에너지화하여 공장의 동력으로 사용토록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전이 돌 경우를 염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시설은 자가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공장은 영산강을 오염시킬 요인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다른 공장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진로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 같은 공해요일들을 앞장서 제거할 각오를 지니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진로는 혼자서만 자 살려는 그런 기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장의 설립에 있어서도 전남 지역의 산업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의 참다운 이념을 실현코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늘 편안하시고 하시는 일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83.10. 주식회사 진 로

대표이사 사장 장 익 룡

이 편지에 대해서 서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반박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첫째, 선진 구라과에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주정공장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지적해 보라.

둘째, 호수에 주정공장 배출시설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가리켜보라.

셋째, 더구나 식수원인 호수에 공해 배치시설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경비를 들여 확인해 보러갈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 후 이상의 내용에 대한 회답은 없었다.

그런데 진로주정 사장인 장익룡씨와의 3차에 걸친 면담 중에서 위원회 대표들은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포착했다. 장익룡 사장의 말 가운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인데 20여억 원이 투자된 지금에 와서 어쩌란 말이냐”는 대목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은 처음부터 ‘주정공장을 설치해도 된다는 것’이 내용적으로 목계가 되었던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표단은 10월 4일 지사와의 면담 시에 주정공장 사장의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이라는 내용의 말을 꺼냈다. 그랬더니 지사는 묵묵부답이었고 보사 국장이 “자기 멋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괜히 우리 입장만 난처하게 한다”고 했다.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은 위원회 대표들은 10월 18일 금성시 삼영동에 있는 공사를 찾아가 확인을 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현장에는 기존 시설의 보수뿐만 아니라 공해배출시설공사를 하다가 그것이 중단된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

❖ 부자에 약한 감독관청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던 중 10월 17일, 이미 이틀 전에 지사로부터 배출시설 허가가 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보전위원회는 다시 실행행사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주정 공장 측의 배출시설 공사건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국무총리 앞으로 질의서를 보냈다.

……앞의 진로주정공장 사장 장익룡씨의 말과 전남도 보사국장의 말 내용이 ……달라서 저희들이 10월 18일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이미 상당한 시설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상식으로는 개인이 조그마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허가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소한 건축법 위반행위도 가차 없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몇 억 원씩 투입하는 공사를 허가도 없이 사전에 착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여기에 대하여 11월 1일 정부 합동민원실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1) 1983.11.10 국무총리실에서 당실로 이관된 귀하의 민원사안을 검토한바 동 사안은 불법건축 관련 진정내용으로 이는 전남도에서 조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기관으로 하여금 민원 사무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기간 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 동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지체되거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차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그 후 11월 22일에는 전남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귀하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주식회사 진로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여 달라는 내용이므로 허가 및 단속권자인 금성시장으로 하여금 별첨과 같이 처리토록 지시하였으나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첨부 민원처리 지시문)

- 1) 관내 서한태가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검토한바 주식회사 진로가 허가 없이 공장시설을 증축하고 있다는 내용이니 현지 출장하여 동 시설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을 조사하여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건축법 제 49조 용벽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 2) 허가 대상인데도 무허가로 축조하였다면 철거 및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건축법 제 42조 위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 42조의 2위반 건축물 설계자 등에 대한 조치, 건축법 제 43조 보고 및 감사 등)
- 3)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민원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 4) 이 민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이관된 사항이므로 처리 결과를 정부합동민원실에 보고하기 바람.

※ 그리고 이에 앞서 11월 15일에는 금성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귀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공작물의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금성시 삼영동 296-1번지 주식회사 진로에서 설치한 고가수로 공작물은 8미터 미만으로 건축법 제 47조 및 동 법시행령 10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이 아니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국무총리에게 보낸 결의서는 정부합동민원실...전남도 지사...금성시장의 순으로 떠밀어져 진로가 설치하고 있는 고가수조 공작물은 8미터 미만으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현지사진을 첨부하여 건의서를 발송하면서도 위와 같은 건의서의 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것 같았지만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래서 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았다. 그 결과 폐수 처리 시설은 건축법이 아니라 환경보전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환경보전법에는 15조에 “배수시설 설치허가 조항에서 배출시설은 반드시 허가증을 교부 받은 연후에 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다. 그래서 위원회는 곧바로 진로주정공장의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여 감사원에 고발했다.

우리 영산호 유역 50여 만 주민과 자손만대의 생존권을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로에서는 전남 금성이 상영동에 위치한 진로 주정공장 폐수 배출시설을 허가도 득하기 전에 수역원을 들여 사전공사를 하였으며 1983년 10월 15일자로 전남지사의 시설설치 허가가 났다고 하여 10월 18일에 본 위원회에서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진로주식회사에서는 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수역 원을 들여 사전공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기업의 이권을 위해 특권층은 이래도 되는지요.

정의사회 구현의 정신으로 우리 영산호유역 주민의 뜻을 모아 고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11월 3일자로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귀하가 당원에 제출한 민원서류는 다음과 같이 처리 중임을 알려 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1) 접수 일자 및 접수 번호 :83.11.1.1994
- 2) 처리 내용 : 환경청에서 조사처리하여 귀하에게 통보함

※ 그 후 환경청에서는 11월 12일자로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귀하가 83년 10월 28일 감사원장에게 제출한 민원이 당청에 이첩되었기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보전법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 6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국 감사원에 제출한 고발장도 환경청으로 떠밀어졌고 환경청에서는 처리 내용은 전혀 없이 법조물만을 나열하고 말았다. 관청은 ‘부자에 약한 관청’ 이라는 것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채로 이 일은 마무리 되었다.

❖ 다같이 불러본 “고향의 봄”

마침내 전남도 지사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나버렸지만 영산호보전위원회는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고 공해추방운동을 간단없이 추진해 나갔다.

무기연기로 무산되어 버린 꺾기대회 등의 실행행사를 다시 준비했고 공해추방 캠페인도 계속했다. 한편으로는 영산강유역환경 보전위원회의 이름으로 영산호보전에 관한 문예작품 현상모집을 포스터를 통해 광고하였다. 이 포스터에는 시내 곳곳에 걸려 있던 플래카드를 시에서 철거한데 항의하여 ‘영산호를 살리자!’ 는 큰 글씨를 써 넣어 플래카드를 대신할 선전 벽보로 사용하였다. 일요일이었던 10월 30일에는 새로 단장된 영산호 휴게소를 아직 가보지 않은 임원도 있고 하여 구경도 하고 현지에 가보면 각자의 투쟁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 오후 4시 휴게소로 집합하기로 하고 일부는 가는 도중 봉고차에 플래카드를 걸고 마이크를 설치하여 가두방송을 하면서 공해추방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휴게소에서는 그 곳 버스승차장에서 리본도 달아주고 유인물도 나누어 주는 등 그 곳에 와있던 사람들에게도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약 1시간에 걸쳐 캠페인운동과 홍보활동을 한 다음 휴게소 3층에 모두 모여 경과보고를 갖고 다함께 ‘고향의 봄’ 을 불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물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리고는 만세삼창으로 끝을 맺었다.

이렇게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치열한 공해추방운동을 벌여 나가자 진로측은 마침내 손을 들었다. 11월 8일 동아·중앙·조선·한국 등 중앙일간지에는 “자진하여 반월공단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게재되었다.

영산호 유역 주민들은 만세를 불렀다. 그날 밤 바로 연락을 취해서 근로자회관에서는 70여 명이 모여 “영산호보존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그 동안 만사 제쳐놓고 공해추방을 위해 싸웠던 주민들의 얼굴엔 승리자의 환희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환희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었다. 앞으로 부딪혀야 할 문제 중의 하나를 어렵게 해냈을 뿐 문제는 산적해 있었다.

가슴 벅찬 환희와 함께 영산호를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의가 얼룩진 밤이었다.

3. 주정공장 추방 이후

약 5개월간에 걸친 진로주정공장 추방 싸움에서는 승리하였지만 현재 한국에서 공해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곳이 거의가 그렇듯이 영산호 주변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었다.

영산호보존회(1983.12.19. 영산호유역환경보전위원회를 영산호보존회로 개칭)측에서는 진로 주정공장이 물러가던 날 밤 열었던 ‘영산호 보존의 밤’ 행사 때부터 광주천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영산호 보존회의 활동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1) 광주천 종말처리장 가동촉구

진로 주정공장 추방문제는 영산호의 오염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시급히 대처해야 할 당면 과제였지만 영산호를 오염시키는 주범은 무엇보다도 광주천에서 흘러내리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였다. 100만을 넘는 광주시민의 생활하수와 분뇨, 공장폐수는 광주천을 새카만 폐수로 만들어 버린 지 오래며 이 폐수는 정화되지 않은 채 영산강 지류를 타고 영산호로 흘러든다. 따라서 광주천 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가동은 영산호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우선 영산호 보존회는 광주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따라서 광주천 종말처리장의 가동이 촉구되기를 바라면서 자연하천과 하수로의 분리 문제라든지 가정하수와 공장폐수의 별도 관로 등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그 후 12월 14일 광주시 부시장 임두일씨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시문이 왔다.

당시 시가지 중심부를 흐르는 광주천의 환경보전 및 수질개선은 시정의 주요 과제로서 이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정화조 일제 청소지도, 위생처리장 시설강화 등을 통하여 광주천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기대책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건설부에서 기본설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 고 -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안)

- 1) 현 하수배출량 1일 16만 톤
(91년에는 30만 톤 예산)
- 2) 하수도 대장 및 기본계획 82년도 완성
(1억 5천만 원 투입)
- 3)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설계-건설부
(사업비 2억 원 기간은 84년 초)
- 4) 84년도 실시 설계공사 개요
 - 처리장 1일 설계공사 개요
 - 때공사기간: 85~88년
 - 때자집관거: 82킬로미터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89년 이전까지는 종말처리장이 가동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그동안 담수호를 바꾼 영산호는 치명적인 오염피해를 볼 것임이 확실하여 영산호 보존회에서는 이 시설의 설치와 가동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특히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국회에도 “영산강 유역 환경보전에 관한 진정”을 제출하였다.

(2) 광주에 민간 환경보전단체 탄생 촉구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주시민들 사이에서 광주천 보존회(가칭) 등이 생겨나서 광주천을 살리자는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광주시장, 광주일보 편집국장 및 광주시의 의사회 간부, 봉사클럽, 문필가 등에게 편지도 보내고 직접 만나 수차에 걸친 설득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에서도 보이듯이 목포시민의 간절한 호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4대강 중 영산강이 가장 오염되어 있다는 보도가 수차 있었음에도 100만여에 가까운 광주시민 가운데 영산강 오염의 주범인 “광주천을 살리자”는 절실한 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을 살리자”는 한강보전위원회, “낙동강을 살리자”는 낙동강보존위원회가 관과 협조하여 끈질긴 노력으로 1983년을 고비로 한강과 낙동강은 맑아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볼 때 광주천만 계속 오염되고 있다는 발표는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광주시민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어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시장님께서 학계, 언론계, 의료계, 국제봉사클럽 등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광주천을 살리자”는 민간단체인 “광주천보호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탄생시켜 광주천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광주천 주변 주민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푸른 꿈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삼가 건의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편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고 여러 사람을 만나 광주천살리기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영산호보존회에서는 “광주에는 그대지도 사람이 없느냐”는 내용이 만화를 그려서 광주에 뿌리려는 계획까지 하고 있었다.

(3) 계몽을 위한 “영산호를 살리자!”는 문예작품 모집

주정공장 설치반대 싸움이 끝나자 유역 주민들 사이에서 영산호 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이 사그라질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영산호 보존회에서는 “영산호를 살리자!”는 내용의 문예작품 모집을 통하여 대대적인 계몽활동을 펴는 한편 이것을 수단으로 시내에 포스터를 부착함으로써 공해추방에 대한 열기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시내 요소요소에 걸려 있던 플래카드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철거돼버려 포스터 부착은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포스터에는 “영산호를 살리자!”는 글씨를 4절지의 상단에 크게 써넣고 이것을 시내 도처에 붙였다.

한편 각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각 급 학교에 문예작품 현상모집을 한 결과 목포, 영암, 해남, 등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약 400점의 작품이 응모돼 왔다.

영산호보존회에서는 이를 엄격히 심사한 끝에 최고상에 목포이로초등학교 김명희 어린이 외 35명, 장려상에 유달초등학교 임수연 어린이 외 25명을 선정하여 그 밖의 입선작을 포함한 입상자들에게 보존회 창설 1주년 기념식장에서 학부모 및 선생님을 모신 가운데 성대한 시상식을 거행 하였다. 그리고 호응해 준 학교 측엔 앞으로 “영산호를 살리자”는 운동에 협조해 달라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하늘과 땅 바다가 찬란한 자연이라면 그 혜택 속에서 온갖 것들이 오묘한 삶을 순리로 이룬다. 생태계와 인간 건강의 섭리를 돌아보고 나래 퍼 비상하는 영산호의 자태에 우리 후손들의 것인 금수강산을 성실히 보존코자 깊은 뜻 새겨 여기 여민다.

그런데 응모한 작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아직도 일반학생들이 자연보호 운동을 그저 쓰레기 줍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이것을 깨뜨리는 데는 공해에 관한 동화나 선생님들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그 후 영산호보존회는 수시로 보존회 임원들과 중·고·대학 생물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에게 공해문제를 인식시키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4) 몽탄강 물고기의 떼죽음

83년 11월 중순경에는 몽탄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을 목격한 주민들은 물고기가 죽어간 장소는 몽탄강 하류로서 예전에는 고기가 싱싱했는데 그곳의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것으로 보아 무엇인가 독극물이 흘러서 고기가 죽었고 그 원인은 보다 상류에 있는 사창의 풍진화학에서 흘러보내는 전분찌꺼기가 아닌가 의심이 가서 몽탄리 이장 임채봉씨가 무안군 당국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말을 들은 영산호보존회에서는 군 당국이 뻔히 안한 줄 알면서도 83년 12월 9일 무안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사건에 대한 조사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1월 중순경 영산호 상류인 몽탄강에 물고기의 떼죽음이 있어 이것이 사창에 있는 전분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되어 유역민이 뜻을 모아 몽탄면 이산리 이장 임채봉씨가 대표로 군에 전화 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어떤 조사팀이 어떤 조사방법으로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무엇이 원인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사창의 전분공장 폐수처리 시설은 완벽한지 알고 싶습니다……

※ 여기에 대하여 무안군수로부터 12월 16일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1)몽탄 사창리 소재 풍진화학은 1972년 전분 반제품 생산공장으로 설립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8,000톤을 수매, 매년 11월 중 25일 정도 작업하고 있는 업체로서 1982년까지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 2)1983년 10월 13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1차 배출 시설로 고구마박(찌꺼기) 처리시설 기계공사(2억 9천만)을 완비, 10월 24일~11월 14일까지 작업한 바 있으며,
- 3)영산호 상류인 몽탄강 물고기 떼죽음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전분공장에서 배출되는 찌꺼기는 처리시설 설치로 일체 배출되지 않고 고구마 세척수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 없음을 회시 합니다.

이상의 회시는 물고기가 왜 죽었는가에 대한 회답이 될 수 없었고 주민의 눈으로 확인하고 신고한 사람을 모르는 척 얼버무리려는 것 같아 이러한 것이 시정되지 않고는 영산호 보존에 만전을 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한 2억 9천만 원이나 투입해서 고구마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기계공사를 했다는 것도 인접 마을사람들의 얘기로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 1월 7일에 무안군 당국에 다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 1) 몽탄강 물고기 폐죽음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회시하였는바 유역 주민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되어 이산리 이장 임채봉씨가 군에 전화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함께 대책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라며,
- 2) 11월 14일 까지 2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구마찌꺼기 처리시설을 완비했다고 회시하였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11월 14일 전남도가 주최하는 11개 군 보전사회 관계관 회의석상에서 무안군 사회과장은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배출시설을 완벽하게 하라고 하면 풍진화학은 그만 두겠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무안군의 영세 고구마생산농가의 생계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군의 입장이 매우 딱하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곧 영산호 보존회에 회시한 내용과 전연 다르니 다시 정확히 회시해 주시기 바라며,
- 3) 풍진화학 배출처리 시설에 대한 환경청의 준공검사 또는 시설점검절차가 있었는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재질의를 받은 무안군에서는 몹시 난처한 입장이 되어 관계담당자직원이 영산호 보존회에 찾아와서 충분한 협의 끝에 앞으로 풍진화학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후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1) 몽탄강 물고기의 폐죽음 사실은 없었고 다만 어획하였을 시 고기의 유영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는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가 없었으며,
- 2) 풍진화학의 고구마박 처리시설 설치 기계공사는 83년 조업전에 설피작업을 마치고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있음.
- 3) 84년에는 조업 이전에 고구마 세척수에 대한 시설을 한 다음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을 통보합니다.

결코 만족스러운 내용이 아니었고 행정당국의 무사안일한 일처리 방식을 또 한 번 확인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지만 관계당국에 충분히 관심을 촉구하였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에서 몽탄강 물고기 폐죽음에 대한 추궁은 그치기로 하였다.

(5)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 싸우지 않고 얻은 공해추방사례

그런데 84년 1월 10일에는 몽탄면 사창리 주민으로부터 “풍진화학측에서 인부 4명이 9일과 10일 양 일 간에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 놓고 저수지물로 풍진화학에서 배출된 전분찌꺼기를 영산호에 흘려보내고 있다”는 전화연락이 왔다. 그래서 영산호보존회에서는 1월 10일 무안군수와 전남도 보사국장 및 목포시장 영산호 사업소장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어 고발하였다.

- 1) 지금은 저수지물을 확보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문을 개방해서 저수량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2) 풍진화학측은 전분찌꺼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흘려보내서 결과적으로 영산호를 오염시키고 있다.
- 3) 이와 같은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의 규제와 처리방법 및 신고처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무안군수로부터 1월 23일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1) 영산호 수질보존은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가고 있고 특히 영산강 상류 하천에 대해서는 “정화의 날”을 제정, 인근 주민들의 계몽 및 하천에 대해서는 “정화의 날”을 제정, 인근 주민들의 계몽 및 하천 청소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 2) 84년 1월 11일 본군 몽탄면 풍진화학·사창공장 앞 대로변의 하천 청소시 저수지 물을 약간 방류한 것은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고구마 세척수의 흙탕물이 고여 있어 주변 청소를 위해 방류했다는 것입니다.
- 3) 본 군에서는 영산호 및 유역하천 오염신고 9개소(영산호유역읍면사무소 및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요령은 6하원칙에 따라 구두 및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영산호보존회에서는 풍진화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중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었다.

하구언 유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마땅한 상수원이 없기 때문에 영산호에서 취수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고, 따라서 특히 목포시민은 영산호의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요즘은 그곳 주민들의 두 차례에 걸친 신고에 의하여 귀 공장의 폐수 찌꺼기가 우리 보존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귀 공장에서 배출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영산호를 살리자!”는 운동에 동참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후 풍진화학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84년 6월 하순경 매스컴을 통해 “배출시설을 철저히 하면 수지가 맞지 않으므로 공장을 폐쇄하겠으니 고구마 생산농가는 그렇게 알고 대량 생산을 하지 말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여러 가지 회시된 공문 내용을 보면 이미 막대한 배출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그만 둔다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각 관청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을 과연 믿어야 할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또 공해야 어떻게 되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기업의 자세는 아직도 공해추방이라는 길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고구마 생산농가나 유역 주민을 생각할 때 단지 폐수 배출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기업을 제 멋대로 그만두는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아쉽다.

(6) 오염현장 목격시 고발요령 확인

영산호보존회는 영산호를 오염시키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고발 요령을 계몽함으로써 오염방지운동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여 환경청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다.

- 1) 84년 1월 9일과 10일 양 일에 걸쳐 몽탄면 사창리 소재 풍진화학에서 배출된 찌꺼기를 인부 4명을 동원하여 인근에 있는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 그 물과 전분 찌꺼기를 혼합하여 영산호로 흘려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84년 1월 10일 인근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 2) 이렇게 영산호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급히 저지시키기 위해 신고하여야 할 곳은 어디며 어떠한 요령으로 신고하는.
- 3) 신고를 하여도 잘 저지가 안 될 때 2차로 신고할 곳은 어디인가.
- 4) 2차 신고를 했어도 잘 안 되었을 때 3차 신고처는 어디인지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해 환경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1) 수질을 오염시키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를 해야 할 곳은 오염물질을 관할하고 있는 무안군 사회과가 되겠으며,
- 2) 2차 신고기관은 그 군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전남도 환경 위생과이고,
- 3) 2차 신고에 의한 사무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당 환경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7) 빛 좋은 개살구 “영산호 수질보전대책” 확인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의 오염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다면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게 될 우려마저 있었다. 그래서 영산호보존회는 영산호의 총 관리담당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84년 1월 28일자 동아일보 톱기사에 환경청의 조사가 실렸는바, 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은 1983년을 고비로 맑아지기 시작했다고 하고 영산강과 금강만이 더러워지고 있다는데 금강은 아직 그 중에 서도 맑은 편이기 때문에 오직 영산강만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1) 영산호 수질 오염 방지에 대하여 전라남도로서의 계획과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 2) 영산호보존회가 하고 있는 “영산호를 살리자!” 는 운동에 좋은 가르침과 참고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남도 위생과장 오성환씨의 이름으로 회신이 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도에서는 수질 보전 대책에 대하여 귀 보존회의 참여와 설립목적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별첨과 같이 수질보전에 따른 계획과 대책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회의 추진운동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의 회신 공문과 함께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영산호 수질보전 대책”이라는 자료를 보내왔는데 내용을 보니 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었다.

오염원의 제거, 공해업소 정비, 위생 처리 시설 설치, 주민홍보 등의 기본방침 외에 세부 계획도 세워져 있었는데 단기 대책으로는 배출시설 및 하천 감시활동, 생활하수 간이 정화 시설, 범도민 캠페인, 홍보활동 등으로 되어 있었고 장기대책으로는 분뇨종말처리장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단 대 공해 업소 단속 및 입지 제한, 오염심화지역 준설, 환경영향 평가 시설 등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보다는 실제상의 활동이 더욱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산호보존회는 다시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냈다.

……현재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84년 3월 31일까지 18개 업소에 대하여는 상시 감시체제 유지를 위한 자동계측기를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부착되어 있는지요.
- 2) 하천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하천별 담당 시·군의 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3) 영산강 수질 보전 번도민 캠페인을 위하여 영산강 수역 시·군 추진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는데 그 구성원이 돼 있는지요.
- 4) 107개의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폐하수 결정처리를 위해 계도하고 있는지요.
- 5)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월1회 이상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지요.
- 6) 영화, 슬라이드 등 시·군 순회강연을 하고 있는지요.
- 7) 사업주 관리에 대한 정기교육(분기 1회)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회시가 없어 다시 질의한 바 며칠 후 전남도 공해계장이 목포에 내려와 “질의 내용이 광범위해서 회답이 어려우며 열심히 하고 있으니 관을 믿어달라”고 하여 상호간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8) 영산강 사업소와 영산호와의 관계

11월 하순경 영산호 지류에 대한 지도를 얻으려고 영산강 사업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주정공장은 물러갔지만 100만여에 가까운 광주시민의 생활하수, 분뇨, 공장폐수 등으로 인해 영산호상류인 광주천이 오염되어 큰일났다”고 보존회 회장이 말하니까 한상욱 소장은 손을 좌우로 설래설래 저으면서 “영산강 사업소와 영산호 수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하는 말을 듣고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영산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대화가 나오면, 보통 “글세 걱정입니다”할 터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데 힘주어 말하기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뜻에서 83년 11월 9일 다음과 같은 공문을 영산강 사업소장 앞으로 발송하였다.

이대로 방치하면 광주시민의 생활하수, 공장폐수, 분뇨 등과 농약, 나주 옥탄올공장, 사창의 전분공장 등으로부터의 공장폐수로 영산호가 오염되어 목포시민의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 쓸 수 없어 모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이룩한 영산호 하구둑의 뜻이 없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나일강 하류에 독을 막은 ‘아스완 댐’도 얻은것도 많지만 잃은 것이 더 많아 오늘날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는 우리 영산호 문제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광주천 종말처리장, 나주 옥탄올공장, 사창의 전분공장등 영산호를 오염시키고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킬 것을 예상케 하는 것에 대한 귀 영산강 사업소로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회답해 주시면 영산호 보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보낸 지 한달 가까이 되어도 아무런 회답이 없어 84년 1월 8일 재차 회시를 촉구하는 공문을 또 보냈다.

그 후 1월 12일자 영산강 사업소장으로부터 겨우 회답이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산강지구 농업협동조합 개발사업으로 축조된 영산호의 원활한 수자원 이용을 위하여는 귀 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나 그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건설부, 환경청 및 전라남도 등의 유관 기관과 협의 처리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려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당 사무소에서는 영산호 오염방지에 적극 지원하겠사오니 영산호 보전에 배전의 협조있기 바랍니다.

이 무렵 영산강 사업소 한소장은 본사로 발령이 났는데 떠나는 마당에서 구두로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는 말을 뒤늦게 전해 듣고 이런 공무원에게는 각성을 불러일으켜야한다는 뜻에서 1월 18일 농업진흥공사 사장에게 영산강 사업소와 영산호 오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다.

영산호가 오염되면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곤란하게 되는데 영산강 상류인 광주천이 4대강 중에서도 가장 오염돼 있어 영산호에 지장이 있을 것이니 광주천 종말처리장 가동이 촉구되어야 하겠다고 영산호 보존회 회장이 말을 전하니까 한소장은 손을 저으면서 그것은 광주시가 할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영산강 사업소와 영산호의 오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한소장의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1월 31일 농업진흥공사 사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관련 호의 내용을 검토한 바 영산호에 유입되는 하천의 오염방지대책은 하천관리청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건설부, 환경청, 전라남도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 시행되어야 하므로 현지 소장의 의견은 시행부서에 대한 표현으로 사려되오며 당공사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축조된 영산호의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현지 사업소에 위임하지 않고 본사에서 직접 정기적인 수질오염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결의 보고하므로써 수질 오염 방지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회시로서도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버릇을 고치는 데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고 일단락을 맺었다.

(9) 한국종합화학의 제품과 배출시설

일찍이 호남비료가 나주시까지 중심부에 있어 인근농토에 많은 비소오염을 가져다 주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했는데 그 후 한국종합화학으로 바뀌었으나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화학공장이니만큼 공해가 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영산호 수질오염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하는 얘기가 나돌기에 우리 보존회에서는 84년 1월 9일 다음과 같은 질의를 금성시장에게 보냈다.

금성시에 있는 한국종합화학에서 나오는 폐수가 영산호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영산호 보존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대다수가 믿고 있는데 아래의 질의에 회시하여 주시면 “영산호를 살리자!”는 운동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 ① 한국종합화학에서 나오는 제품의 상품명과 화학품명은 무엇인지요?
- ② 한국종합화학의 폐수처리 시설은 완전무결한가? 혹시 보완시설은 필요하지 않은지요?
수고스럽지만 회시하여 주시면 영산호 보존운동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1월 16일 금성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① 한국종합화학에서 나오는 제품명은 “옥탄올” “노말부탄올” “이소부탄올” “소석회” “가성소다” “식염” “아인산소다” “삼인산소다” “탄산가리” “붕사” “탄사노다” “셀포탄” “이판” 이다.
- ②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전남도 환경 1437~651(83. 7. 19)호의 검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적합판정 되었기에 폐수시설에 이상이 없다 함.

이상과 같은 회시가 왔으나 화학계통의 전문가에게 문의해도 이러한 제품에 대하여는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관의 검사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장폐수일부에 고기라도 길러서 국민학생이 보더라도 고기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는 식물지표와 같은 훌륭한 방법이 아쉽다.

(10) 럭키 나주 “옥탄올” 공장과 “하이타이퐁퐁”

84년 4월 10일 ‘럭키, 호남 본격적 진출’이라는 제하 경향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 인수한 “럭키나주옥탄올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공장을 증설한다고 했으며 5월 4일자 광주일보에는 ‘럭키금성, 나주옥탄올 공장 삼단계로 공장증설’이라는 보도가 났는데 공장내의 공한지, 사택 등 2만여평을 정비하여 ‘하이타이퐁퐁’ 세척공장을 건립, 88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전부터 화학공장이니만치 여러 가지 공해가 배출될 것이 예상됐으나 종전에 생산되던 옥탄올, 부탄올, 드라이아이스, 카본 등은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없어 투쟁을 전개하더라도 시민에게 설득력이 없을것 같아서 주시하고 있던 차 ‘하이타이 퐁퐁’을 생산한다고 보도가 되었기에 이는 주부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독한 것이라는 것이기에 포문을 열게 된것이다.

그리하여 일차로 84년 5월 31일 환경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다.

지난 5월 4일 광주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금성시 송월동에 있는 한국종합화학을 럭키그룹이 인수하여 삼단계로 대규모 시설을 갖추어 드라이아이스, 옥탄올, 하이타이, 퐁퐁 등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고 뜻있는 많은 우리 목포시민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과 같은 시설을 갖출 경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우리 목포시민의 식수원인 영산호 상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게 생각하는 우리시민의 설득을 무마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공장으로 확장하여도 기존 배출시설로 산업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둘째: 대규모 공장 확장에 따르는 새로운 배출시설 설치계획은?

셋째: 일반 주민은 수질오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나 판단 또는 감시가 어려우므로 지역주민들도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좋은방법(예: 생물지표 등)을 환경청에서는 착상하고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환경청장으로부터 84년 6월 9일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① 배출시설을 변경(대규모 공장확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환경보전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며 1일 폐수배출량 50m³이상인 경우에는 동 업소의 허가(변경허가 포함)와 관련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관하여 환경보전법 제 15조의 3 동 시행령 제 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술 감시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적정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보전법 제 49조 3의 규정의 의거 적법하게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② 한국종합화학(금성시 소재)의 변경허가에 따른 관련자료는 현재(84. 6. 8) 당청에 접수된 바 없음.
- ③ 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하여는 영산강(금성)의 경우 정기적(월1회)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공단지역 및 오염물질 대량 배출업소(한국종합화학 포함)에 대한 감시는 환경청 중앙지도 점건반으로 하여금 직접 지도 감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후 6월 27일 전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였다.

5월 4일자 광주일보에 금성시에 있는 “럭키 나주옥탄올공장” 이 앞으로 증설되어 공해가 심한 “하이타이 풍풍” 등 여러 가지를 대량 생산하게 된다는 기사가 나온 후 뜻있는 목포시민들은 차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고자 하오니 다음 몇가지를 회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① 금성시 “하이타이 풍풍” 공장의 허가권자는 누구인지요?
- ② 화학공장 특히 “하이타이 풍풍” 은 공해산업이 아닌지요?
- ③ 88고속도로가 뚫리면 영남에 있는 공해산업이 밀어 닥칠 것을 우려하는 시민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요?
- ④ 공해배출 시설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상시 감시장치의 계획은 있는 지요?

그러나 한달이 경과해도 회시가 없어 7월 27일 촉구하는 질의를 또 내었다. 이에 앞서 6월 28일에는 ‘금성시에 럭키그룹에서 주정보다 지독한 “하이타이 풍풍”공장을 세우려 한다. 우리의 먹는물을 오염하는 그 어떤 것도 미리 막자!’

이상과 같은 전단을 10,000매를 살포하였다.

그 후 8월 2일 전남공해계장이 본 보전회를 찾아와 앞으로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간 후 8월 6일 전남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럭키 나주옥탄올 하이타이공장 공해공장 설치 및 영남에 있는 공해산업이 밀어닥칠것을 우려하여 질의함에 있어서는 어느 업소로부터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아직 없으며 영산강 수질보전대책추진에 있어서는 귀하께서 평소 염려하는 바와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당분간 공해계장과 약속한 바도 있어 그런데로 잠시 물러서서 관망하기로 하였다.

4. 영산호 문제의 현주소와 투쟁과정에서의 교훈

(1) 영산호 문제의 현주소

83년 이후의 줄기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영산호는 아직도 해결 되어야 할 수 많은 문제를 안은채 병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먼저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영산호의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닌 고여 있는 물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영산호의 바닥은 모래나 자갈이 아니라 거리가 뻘이다. 비가 아주 많이 내리면 수문을 통해 흘러보낼까 평상시는 수문은 굳게 닫혀 있다. 영산호보존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 당국에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장성호, 담양호, 나주호, 광주호 등에서 하천 일일유지수량을 지키기 위해 적정량을 물을 방류하고 있는지에 관해 질의도 해보았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답신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둑 밑에 있는 하천이 메말라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는 일일하천유지수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이는 영산호의 자정능력 강화와 오염방지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둘째, 영산호 유역에서 흘러들어오는 각종 폐수는 아직도 이렇게 할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영산호에 유입되고 있다. 이 폐수는 크게 나누어 주민들이 쓰고 버리는 생활 폐수, 공업단지 등에서 나오는 공장폐수 그리고 농지에서 흘러드는 각종 화학비료와 농약 등 세 가지이다.

영산보존회에서는 생활폐수와 관련해서는 합성세제의 독성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합성세제 적게쓰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이 직접 흘러드는 것에 대해서는 영산호 주변에 녹지대과 독을 설치함으로써 직접 유입을 막는 방식을 제안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활동이나 제안은 관의 무성의와 무책임한 태도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물고기가 왕창 죽었다든지 하는 상황이 외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셋째, 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시급하다. 89년에 기동예정인 광주천 종말처리장의 가동을 더욱 더 앞당기는 문제와 더불어 최소한 나주시 밑에 종말처리장을 가설하는 문제를 본회에서는 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 조사연구하겠다는 답답한 회신 이루어 아무런 조치도 없는 실정이다.

넷째, 광범위한 반공해단체의 결성이다. 현재는 피해의 직접 당사자이자 최대의 피해자인 목포시민을 중심으로 한 영산호보존회가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영산호의 문제는 결코 목포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도 더 늦기 전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공해단체가 생겨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산호 보존회측에서는 건의문도 보내고 접촉도 갖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기관이 공해문제에 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영산호 문제에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관은 끊임없이 문제를 회피 내지는 은폐하는 데만 급급해 왔다. 영산호수질보전대책은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지만 실제 활동은 거의 없다. 환경청에서는 영산호 23개 지점에서 물을 채취하여 25개 항목에 걸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존회측에서는 과학적인 대책을 세울 터이니 검사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하나마나 이다.

특히 영산호에만 관계된 기관으로도 농업진흥공사 영산강 사업소, 영산강 조합, 영산강 관광개발사무소 등 세 개나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도 땅만들어 땅 팔아 먹고 물 팔아먹고 위락시설 만드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지 이 모든 사항이 깨끗한 물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에도 수질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목포시에서도 영산호 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3백7억 상당의 시설을 계획하여 추진했으나 그 중에서 수질보전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수질오염에 대한 관의 무관심과 무성의와 무책임의 전형적인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여섯째, 영산호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선의 운용이 필요하다. 영산호보존회에서는 농업진흥공사가 전라남도에 감시선 운용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 뚱뚱 떠다니는 쓰레기 수거, 신속한 적발 및 세밀한 수질검사 등 감시선의 용도는 많다. 수천억을 들여 완공한 영산호를 지키는 데 1천만원 정도의 감시선 운용을 주저하는 이 유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2) 교훈

짧지 않은 기간 영산호 보존을 위한 싸움을 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느끼는 바도 많았다. 여기에 그 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가 정리한다.

첫째는 조직의 문제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 성격상 장기간 지속되고 또 광범위한 주민운동의 뒷받침없이 불가능한 반공해운동에서는 상설기구로서의 주민조직이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설조직은 끊임없이 정비·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로 구성되는 이러한 조직은 철저히 상향식의 민주적방식과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영산호보존회의 경우는 회원모집과 아울러 회원수에 비례하는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가지 특이할만한 것으로는 개별적 회원등록방식은 사무도 복잡하고 또 방대한 숫자가 참여하면 관리뿐만 아니라 유사시 동원문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단체등록방식을 병행했다. 영산호보존회에서는 현재 단체회원으로 의사회, 약사회 등의 의약단체와 국제봉사 클럽이었다.

둘째, 반공해운동의 경우에는 유사시 주민의 뜻을 모아 격렬히 항의하여 공해를 추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쉬임없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산호 보존회에서는 주민들의 뇌리에서 공해를 추방해야 한다는 의식이 떠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계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에 옮겼다. 주부교실·반상회 등을 통한 계몽, 반공해사진전 개최, 공해관련 연극 '나의 살던 고향은' (연우무대 공연) 초청공연, 학술강연회, 계몽유인물 살포 등의 활동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

특히 반공해운동의 중요한 자원인 학생층을 겨냥하여 학교 선생님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담임선생님이 수업을 시작 할때 공해에 관한 짤막한 한 말씀을 던지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주로 공해문제와 관련한 생물, 화학 선생님들과만 이야기가 오갔으나 점차 확대되어갔다. 또한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해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당선 작품을 모아 책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셋째, 사건이 생겼을 때 질의, 건의, 항의하는 방식으로 관계기관을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것이 좋다. 공해 등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무성의, 무책임, 책임회피 내지는 책임 전가 등으로 일관해온 기관을 상대로 함에 있어서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여 확실한 근거를 남기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녹을 받고 공해 사범을 척결하고 감시해야할 그들의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사건이 신문, 잡지 등에 보도되면 우선 관계당국에 그 사실여부, 조사방법, 처리방법 결과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한다, 당국이 미적거리거나 만청을 부릴 때는 분명히 공해의 주범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재차 독촉도 하고 회신 내용 가운데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추궁한다. 이렇게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건설적인 대안이 있으면 건의하기도 하고 부당 할때에는 항의 문서를 보내는 것도 효과적인 운동방법이다. 그간 영산호보존회는 오염시키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고발하는 요령에 대한 질의, 전남도의 거창한 계획이 어느 정도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럭키나주옥탄을공장에서 하이타이 풍풍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대수개발 기름탱크가 터져 영산호 상류가 오염됐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나주호에 중장비가 들어가 골재를 채취하면서 폐유로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항의 등을 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넷째, 싸움이 벌어지면 적극적인 방법을 모조리 동원해야 한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유인물 살포, 리본달기, 프랭카드걸기, 가두서명운동, 가두방송 등이 있고 그 다음 차원으로는 결의문 채택하여 요로에 보내기, 국외에 청원서 보내기, 요인면담 등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한판 승부인 궤기 대회 내지는 시위방식이 있다.

진로 주정 공장 추방싸움 당시에 이 이러한 방법이 모두 동원되었다. 관계기관에서는 협박조로 법 테두리 내에서 전개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지만 영산호보존회측에서는 법이 잘 못되었으면 법개정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식으로 밀어부침으로써 승리를 얻어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다.

5.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언

❖ 수도공사 설립을 촉구한다

이 문제는 서한태위원장께서 고심 끝에 성안하여 국회에 청원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했던 사항으로서 여기에 그 안의 전문을 실는다.

물이 흔하다고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물도 자원화하여 수자원(水資源)이라는 용어까지도 생소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물의 관리가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수도공사화를 촉구한다.



첫째, 물은 한정되어 있다. 지난 60년간 강우량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간 1,172mm의 비가 내리고, 그 중 약 22%정도가 이용되는 수량(水量)이라고 한다. 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류·분배 해야한다고 한다.

둘째, 물은 외국에서 사들여 오지 못한다. 물은 외국에서 사들인다면 채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한다.

셋째, 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쓰는 것도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은 한정되어 있고, 외국에서 잡아 먹을 수도 없고, 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쓸 수도 없으니 물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넷째, 먹는 물만은 특히 맑아야 한다. 물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업용수는 중수(中水)로도 가능하다. 일본의 「물과 경제학」이라는 자료집에 의하면 공업용수는 70%가 냉각수이고 29%가 세척수이기 때문에 그다지 깨끗한 물이 아니더라도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여섯째, 공업용수량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거에 공업용수는 식수에 비하여 비교도 안될 만큼 소량이었으나 2, 3년 전부터는 공업용수가 식수량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00년대에 공업용수에 문제가 생길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업용수는 동일 종류의 생산품을 생산해내는데 외국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장의 배출시설·규제가 총량규제가 아니고 농도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많은 물로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많은 물로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노력여하에 따라 공업용수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일곱째 농업용수도 중수로 충분하리라 믿는다 영산호와 같이 광활한 호수물을 상수원(上水源)으로 한다고 해서 주변의 많은 시와 군을 상수보호지구로 묶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장성호나 나주호를 상수원으로 한다면 상수보호지구로 묶어보았자 별로 지장이 없지 않은가?

여덟째, 한정된 물을 규모있게 쓰기 위해서는 상수, 중수로 분류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아홉째, 물은 어느곳에서나 국민 누구라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빛이나 공기와 같이 생존에 불가피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열 번째, 생활필수품인 물값은 싸야 한다. 현재 목포의 물값은 서울에 비하여 6.4배나 되는데 물값이 이렇게 비쌀 수가 있단 말인가?

공공요금에 곱절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일반 물가도 지방에 따라 곱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생(生)의 필수품인 물값이 이처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구나 앞으로 40~50%의 하수도 사용료가 가산된다면 목포시민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가장 불편한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이럴 수는 없다.

열한번째, 현대과학으로는 합성세제나 화학비료, 농약. 공장에서 나오는 중금속 처리가 잘 안되는데 좋은 물을 나두고 이런 물을 식수로 쓴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농업용수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일찍이 우리나라 하천의 상류 좋은 곳을 막고 거기에 담긴 물을 쓰고 있는데 맑은 물로 농사짓고 보다 못한 물을 직접 마시게 한다면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해 가는것이 역사발전일 것이다.

열두번째, 수질 보전을 위해 하루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류의 주민들에게 계속 오염시키지 말라고 싸움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상과 같은 내용의 현실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국통합급수방법」인 수도공사를 만들어 수자원을 상수, 중수로 분류하여 맑은 물은 식수로 쓰고 중수는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는 것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줄 믿는다.

가정에서 물이 귀할 때 깨끗한 물로 쌀을 씻고, 그 쌀 씻은 물로 걸레를 빨며, 걸레를 빨고 남은 물은 마당에 뿌리면 규모있게 살림 잘하는 훌륭한 주부라고 칭찬받는 것처럼 나라살림에서 정부도 수자원관리를 잘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찢겨진 삼학도에 날개를 |

1. 찢겨진 삼학도

많은 택시 기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한결같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유달산보다 삼학도를 더 많이 찾는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삼학도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지고 훼손되어 있어서 삼학도로 가자는 손님을 싣고 삼학도 입구에 내려 주자마자 뺑소니 치 듯이 달아난다는 것이다.

1950년대까지만 하여도 삼학도는 세 개의 섬이 물 위에 동실 떠있는 듯이 아름다웠으며 봄, 가을철에 씨름판과 그네대회 등이 열릴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서 열을 내기도 하였으며 여름에는 아쉬운 대로 해수욕장 구실도 하였고 부두에서 삼학도까지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어서 도선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은 옷을 벗어 머리에 이고 발해엄을 쳐서 건너기도 하였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노래 때문에 유명해졌겠지만 어찌하였던 유달산과 더불어 목포의 상징이며 낭만어린 삼학도가 훼손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연육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1962년에는 고위층의 압력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은 가나 어찌하였던 삼학도에 폭탄과 같은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꼴사납게 들어서 있는 기름 탱크는 강수성 시장 재임 때 2년만 임시 빌려 쓰는 조건으로 석유회사와 상부의 압력으로 세워 지게 되어 오늘날까지 옮긴다, 옮긴다하면서도 지금도 버젓이 서있다. 압력을 받고 허락한 강수성 시장에게는 다소 연민의 동정은 가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1971년에는 군 출신인 김동석 시장이 창녀촌을 삼학도 중턱에 옮겼으며, 1983년 이병내 시장 재임 때에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절대로 삼학도에 조선소가 들어서서는 아니 된다고 남양조선소 설치를 적극 반대하여 허가하지 않았으나 범택균 시장이 조선소 설치를 허가하여 버렸다. 당시 나상수씨가 이병내 시장이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기에 본인은 그곳에 조선소를 세우지 말고 딴 곳에 세우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힘이 있는가, 시에서 나가라면 언제든지 나가겠네.” 라고 말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말을 실천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게만 살아온 목포 시민들은 아무 곳이나 공장만 들어서면 잘 살 것으로 믿었지만 삼학도에 모시다시피 하여 유치한 호남제분 공장이나 시내에 다른 장소도 많이 있었는데도 하필 삼학도에 들어선 관공서 향만청, 조달청 그리고 나아가서는 새까만 먼지가 휘날리는 석탄 하역장은 그야말로 삼학도를 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

한 치의 앞도 내다 볼 줄 모르는 무책임하고 이권에 눈이 먼 사람들에 의해서 이처럼 꼴불견이 된 것이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도리어 활개치고 영전만 잘하니 오늘에 와서도 다시금 삼학도의 훼손문제가 거론되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일제 말기에 조선의 문화 말살정책으로 1937년 삼학도를 측량한 다음 삼학도를 없애버릴 계획으로 부두계획을 세웠었는데 해방된 오늘날 일본 놈이 하는 일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삼학도 부두가 세워졌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다. 아무튼 역사의 심판 없이 지난 일을 덮어 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삼학도 훼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2. 곡물 싸이로

큰 개발은 마땅히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84년 5월경 중 삼학도에 호남제분에서 곡물 싸이로를 세우려할 때 회사의 부지만으로는 세울 수 없자 상 공회의소와 개발위원회를 움직이고 심지어는 국제봉사클럽의 사무 여직원을 꼬여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도둑놈 제사 모시듯”이 조용히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의 건의문 내용에는 “중삼학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녹지를 풀어 산업기지화 해야 한다”는 대목이 들어있었다.

이 건의문은 목포시를 통해 건설부까지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목포시에 서류가 계류 중에 있을 때야 어렵풋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긴급히 국제봉사클럽협의체를 소집하여 ‘삼학도를 살리자’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삼학도를 녹지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녹지를 풀어 산업기지화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내용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들어갔다.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의 90%가 삼학도를 녹지 휴식공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어느 주부가 보낸 설문지 뒷면에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니 소신껏 싸워주세요”라는 짤막한 글까지 있어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었다.

삼학도의 곡물 싸이로 문제로 시민의 관심이 한참 고조될 무렵 상공회의소와 개발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전체 시민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개발위원과 상공인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려고 했다. 공청회 주최 측은 “서선생 혼자만 반대하지 모든 시민은 찬성 한다”는 말들을 퍼뜨리고 다녔었다. 그런데 공청회당일 삼학도에 곡물싸이로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발언을 할 사람을 찾았더니 찾기가 무척 힘들었다. 이대로 나 혼자 나가면 영락없이 서선생 혼자구나 할 것 같아 몹시 애가 탔다. 설문지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90%가 설치반대를 하면서도 공청회 토론장에 가서 반대의 뜻을 펴자니 함께 대변해 줄 사람이 나서지를 않고 이처럼 민중을 대변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 공청일자 : 84년 6월 13일. 공청회 발언자 : 서한태, 유영석, 배광언, 김옥현, 이장용, 문영식, 장양구, 이상윤, 한봉규, 최향춘, 김천옥 등 11명)

겨우 예총지부장 문영식씨와 약사회장 장양구씨와 나 이렇게 세 사람이 공청회 반대자로 나갔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우리 세 사람들이 발언하고 나니 반대측은 끝이 나버렸으나 찬성측은 7~8명 계속 발언자가 줄을 이어 마치 공청회의 분위기는 모두 다 찬성편인 것처럼 보였다. 돈 많은 부자들이 말도 잘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촌놈 식으로 끝장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종전에 썼던 설문지를 참석자들에게 뿌려주면서 다시 발언을 얻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설문지에 자기 이름을 명백히 기입하고 찬성, 반대를 분명히 하여 주십시오. 지난날 찬성해 놓고도 훗날 반대쪽으로 상황이 바뀌어지면 나는 안했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많은데 적어도 우리 지역사회의 주역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찬성, 반대자의 명단을 시내 곳곳에 벽보를 붙여 시민의 심판을 받고 먼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십시오.”하고 열변을 토했더니 당시 사회를 맡고 있던 최향춘 영감께서 두 손을 옆으로 저으면서 “이 문제는 모든 것을 백지화 한다.” 라고 선언하였다.

이상으로 삼학도에 곡물 싸이로가 들어서는 것을 저지한 셈이다.

3. 시멘트 싸이로

86년 5월 중순이었다. 쌍용에서 삼학도 중심부에 시멘트 싸이로(4,000t) 2개와 시멘트 포대를 만드는 부대시설 설치계획을 착착 진척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시멘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장으로부터 들었다. 소식을 전해 주신 분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성실성으로 보아 상당히 근거가 있는 소식이라고 여겨졌다. 그리고 영산호보존회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그 소식내용을 알리고 삼학도에 시멘트 싸이로 설치계획이 있는지의 사실 여부를 목포시와 향만청에 질의하기로 결의 하였다.

즉시 영산호보존회의 명의 질의하였던 바, 5월 22일 향만청으로부터는 시멘트싸이로 계획이 있다고 화답이 왔고 시로부터는 아는 바 없다는 회답이 왔다. 목포시도 충분히 알고 있었겠지만 관공서는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는 으레 연막을 피우는 것이 상례인 것 같았다.

그 후 5월 28일에 향만청으로부터 사람을 통해 영산호보존회 측과 한 번 만났으면 한다고 해서 영산호보존회와 향만청 그리고 하역 협회가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영산호보존회 측에서는 당시 회장이던 유재열씨와 부회장 김창용씨 그리고 연구위원 자격으로 서한태 등 3명이 참석하고 하역협회 대표 임종환, 향만청장 외 향만청 직원 2명이 참석하였다.

그런데 향만청장의 브리핑에서 깜짝 놀란 것은 목포시장실에 비치된 삼학도 모형도는 푸른 공원이 근사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이곳 향만청에 비치된 삼학도 모형도는 주변이 대부분 재색의 부두시설로 메워져 있고 녹색의 공원은 볼품없이 중심부에 초라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불쾌한 분노가 치밀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 같은 생각만 들었다. 어떻게 하여 똑같은 장소인 삼학도가 시에서는 공원 위주로 그려져 있고 향만청은 부두시설 위주로 그려져 있는 식으로 이원화 될 수 있단 말인가?

향만청장의 설명으로는 시멘트 싸이로가 삼학도에 들어서면 목포항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공해도 없다는 것이었고 영산호보존회 측에서는 공해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목포에 떨어지는 이익은 적으면서도 삼학도 공원화 계획에 큰 차질을 줄 것이라고 맞섰다. 나는 이 때 마음속으로 ‘나쁜 놈들 기업은 별소리를 하여도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는 법이다. 삼학도야말로 접안 시설이 잘되어 있겠다. 철로가 있고 자동차 길이 있으니 대기업에게는 얼마나 탐스런 곳이나? 대기업의 허위의식을 꿰뚫어보아야 한다’ 하고 다짐했다. 작별인사 때 향만청장은 잘 보아달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림도 없는 소리’ 라고 다짐하면서 헤어졌다.

그런데 영산호보존회가 주정공장 추방운동 당시 향운노조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았었기 때문에 향운노조원이 우리 영산호보존회의 요직에 있는 상황에서 싸움을 풀어가는데 분위기가 좀 미묘했다. 삼학도에 싸이로가 생기면 노조원의 어깨로 짐을 푸지 않고 기계로 하역을 하게 되고 눈물 값으로 연간 6내지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쌍용에서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향운노조에서는 은근히 싸이로가 생기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서 반대하는 동의를 힘주어 하였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두리번거리며 향운노조의 눈치를 살피느라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열변을 토로한 후에 가까스로 일단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아 항만청과 목포시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 무렵 시중 분위기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장들이 뒷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지 들쭉 모양으로 한결같이 찬성을 하고 있었고 민정당 또한 지구당위원장이 찬성하기 때문인지 간부들은 전적으로 찬성 편이었으며 매스컴 또한 평소 항만청장과의 교분 탓인지 찬성 편이었고 정보기관 또한 모두가 찬성 쪽이었다. 대단히 서운한 것은 명색이 기관장이라 하면 지역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소신을 밝혀야 될 터인데 무조건 뒷사람의 눈치를 따른 것이 불만이었다.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볼만한 싸움이었으나 이 무렵 목포의 분위기는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드센 향운노조를 꺾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나는 ‘이제까지 싸움에 저분적 이 없었는데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다. 유일한 나의 힘이 되는 영산호보존회마저 양분이 되어 있었고 지배적인 여론이 찬성하는 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는 싸움일지라도 먼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계속하였다.

운동의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 최소한 5,000매 이상의 유인물을 살포해야 하는데 개인의 이름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힘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영산호보존회의 이름이 필요하였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 난감하였다. 그래서 어렵사리 반대하는 쪽이 잠잠할 때 날치기식으로 결의를 얻어 5,000매의 유인물을 만들어 주로 초, 중, 고, 대학 등의 선생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 YMCA, YWCA 등에 살포하였다.

유인물은 차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여 교사들의 계모임 등에서부터 화제가 되기 시작하여 삼학도의 시멘트 싸이로 설치반대운동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6월 26일 오후 3시에는 목포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시멘트 싸이로 설치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제일 먼저 박옥종 해운항만청장의 ‘시멘트 싸이로는 공해가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 장장 한 시간 정도에 걸쳐 계속 되었다.

첫 질문에 나선 본인은 첫째, 둘째를 들먹여 가면서 돈을 높여 생각나는 대로 외쳤다.

첫째, 삼학도는 목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야 한다.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다도해 유람선의 부두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분들은 ‘경치가 밥먹여 주느냐?’ 하는데 왜 하필 삼학도에만 세우려 하느냐? 오늘날 도심지에 30%의 녹지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인데 런던이나 베를린은 멩청해서 공원을 만들고 도심지에 수목을 채웠겠느냐?

셋째, 어차피 훼손된 삼학도이기 때문에 공장지대나 했으면 하는데 일제시대 같으면 어차피 식민지이니 독립운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민중이 깨우치면 역사는 깨우친 방향으로 가는데 시민이 공원을 원한다면 우리 대에 아니 생기더라도 자식 대에는 생기고 만다.

넷째, 일찍이 2천여 년 전에 논어에서는 ‘눈앞의 사소한 이득 때문에 큰 뜻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항운노조의 경우 7천만원이 클튼지는 모르나 개인적으로는 연간 2, 3만 원 정도 분배되는데 훗날 자식들이 삼학도 훼손의 책임이 너희 아버지들 때문이라고 욱먹어서는 되겠는가?

다섯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난날 삼학도를 훼손한 사람들이 더 영전하고 활개치고 거드름만 피우는데 이들에게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없었기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별소리를 하여도 기업은 이윤추구에만 환장하고 있다. 접안시설이 잘 되어 있고 철도가 있고 자동차 길이 있어서 이익속이 많으니까 손 안대고 코풀려는 것이다.

일곱째, 보존과 개발이 맞서 싸우다가 숫자노름으로 과반수가 넘는 쪽으로 결정지어서는 안된다. 서투른 개발은 아니 하는 것만 못하고 후세 사람들의 훌륭한 머리로 결정짓도록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짓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여덟째, 한번 싸이로가 들어서면 야금야금 공장지대로 바뀌어질 염려가 많고 공장에 대한 감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다.

석유난로도 설명서를 보면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난다고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설명서대로이나 사용해 가면서 보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싸이로에서도 시멘트 가루가 휘날리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해가 없다는 어떠한 말도 믿을 수 없다, 만일 항만청장이 자신 있게 말 하시려면 훗날 공원지대에 시멘트 가루가 있으면 긁어모아서 마시겠다는 각오 없이 헛소리 말라!(이때 너무하다는 말들이 있었음)

아홉째, 항만청과 시청이 삼학도를 가지고 따로따로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 어찌할 수 없다고 하나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시민을 위한 다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지 않겠는가?

열 번째, 주변 환경이 좋아야 한다. 공원 옆에 꼴사납게 석탄 부두, 기름 탱크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2천 3백여 년 전의 ‘맹모삼천지교’도 모르는가? 런던의 중심지에 있는 ‘하이드’ 공원은 20만 평이나 되는데 고층빌딩이 시계를 가린다고 국회에서 말썽까지 있었다 등의 십여 가지를 쉬지도 않고 열변을 토하였다.

두 번째의 질의자로 나선 김암기 예총지부장은 나포리 등의 예를 들면서 다도해의 아름다운 천연자원을 관광지로 하기 위하여 삼학도는 당연히 공원으로 가꾸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세 번째의 질의자로 나선 차남수 선생님은 일본 북해도의 하꼬다테를 예로 들면서 삼학도는 꼭 공원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 한 분 박형상 수협조합장만이 공해가 없다고 하니 목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싸이로 설치를 찬성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주섭 시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민공청회를 열 것을 약속하고 시정자문회의를 끝마쳤다.

그러나 공청회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영영 열리지 못하고 말았다.

이 무렵 간간히 사람을 통하여 ‘삼학도 공원을 만드는데 금전적으로 협조하면 어떻겠는가? 하역하는 기계설비를 더 훌륭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샷슨식, 콘베아식 등으로 시설을 보완하면 어떻겠는가? 싸이로는 어찌는 수 없이 삼학도에 두어도 시멘트 지대 만드는 시설은 공장지대로 분리하여 시설하면 어떻겠는가?’ 등의 교섭과 타협이 들어와 나는 한없이 기뻐다. ‘싸움이 있었기에 이러한 식의 교섭이라도 들어오는 소득이 있지 않겠는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무더운 8월 달에 들어서는 예총모임에 초대를 받아 삼학도에 시멘트 싸이로가 들어서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이성을 잃을 정도의 흥분된 어조로 열변을 토하였다. 예총회관을 나오면서 체신머리없게 나잇살이나 먹은 주제에 흥분되어 이야기하고 나온 것이 한없이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후일 생각해보니 이것이 삼학도 시멘트싸이로 반대운동의 전환점이 될줄이야! 예총에서 나의 호소를 듣고 있던 공생원 윤기원장은 다음 날 찾아와서 좋은 구상도 알려주었으면 예총에서는 ‘이것은 우리 예총에서 할 일 이다’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예총을 중심으로 기독교인과 합하여 삼학도보전회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영산호보존회가 주로 의약인과 국제봉사클럽의 회원들의 주축으로 구성되어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여 삼학도보전회를 탄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창립대회는 9월 9일 오후 3시 목포 YMCA에서 가졌다. 회장에는 차우균, 부회장에는 김암기, 김천영, 오용갑, 임태유, 윤기로 선임하고 상임간사에는 박종길, 감사에는 이재윤, 최일환을 선임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진을 10여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 회원 확장에 경주하기로 하였다.

이 사실이 시중에 알려지자 아직 조직도 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초긴장된 곳은 목포시와 향만청이었다. 향만청장은 “이제 삼학도 부두계획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커다란 상전이 생겨 났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라고 하고 목포시 또한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늘었다”고 솔직히 이야기 하며 못마땅하게 생각들 하였다.

삼학도보전회가 탄생되었지만 구체적인 과제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예산도 없어서 우선은 돈이 적게 드는 운동으로 계몽용 유인물을 살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시민들에게 계몽용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유인물에 담아 살포하였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삼학도를 살리자는 내용의 글과 첫째, 더 이상 삼학도 훼손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둘째, 삼학도 내의 기존 공원화의 장애 요인들은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관계당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삼학도 공원화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시민의 참여 없는 삼학도 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 다섯째, 확정된 삼학도 공원화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정식 포고문을 열게 되었다.

1차 유인물이 나간 다음 계속하여 2차 유인물 “삼학도를 아름답게”와 3차유인물 “찢겨진 삼학도에 날개를...”, 4차유인물 ‘삼학도보전회에서는 목포에 공장이 들어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은 공장지대로 유치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은 보전할 것을 주장 한다’는 내용 그리고 5차 유인물로 『삼학도 이대로 좋은가?』를 내가 직접 제작하여 내 손으로 살포하였다.

6월 달에 시정자문회의가 끝난 다음 안주섭 목포시장은 멀지 않아 시민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었으나 삼학도 보전회가 생긴 후로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10월달이 지나도록 뚜렷하게 공청회개최를 한다 안 한다는 말이 없어 지나갔다.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시청 간부들 중에서 공청회는 없을 것이라는 등 또 이 일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중의 말이 나왔다고도 하고 최향춘 영감은 다방가에서 ‘이론적으로 삼학도보전회를 이길 수 없으니 공청회를 열어보았자...’ 하고 답답한 표정을 짓더라는 이야기 등도 들었다.

이 무렵 10월 달에 들어서 매년 열리는 예총행사의 하나로 학생 토론대회가 있는데 10월 9일 오후 2시 예술인 사랑방에서 목포문협 주최로 ‘삼학도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찬성·반대를 갈라 고교생 토론의 광장을 개최한다 하여 삼학도보전회로서는 시민공청회를 열지 않아 버르던 참에 여기서 장을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삼학도 시멘트 싸이로 설치반대 측 발언자 학생들이 나에게 왔기에 모든 자료와 유인물들을 주면 학생들의 질문에 소상히 설명하여 주었다. 또한 설치 찬성 측 학생들에게는 최향춘영감, 박형상 수협조합장, 향만청장 등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며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일러주었다.

또한 삼학도 보전회의 이름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이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하도록 유도한 후 많은 기대를 걸고 당일 오후 2시 공설시장 2층 예술인 사랑방에 가보았더니 김이 센 듯한 묘한 분위기였다. 내용인 즉 전남, 예총, 문협 간부들이 안전기획부의 압력을 받고 몹시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토론대회를 무산 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연락이 잘못된 몇몇 학생들이 들락들락하다 못 열리고 말았는데 나는 핫김에 악을 한번 찢다.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안기부에서 이러한 행사도 못 치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결과적으로 한 번 판을 벌려 볼 심정이었는데 싱겁게 끝난 셈이다.

그 후 11월에 들어서 쌍용시멘트 본사로부터 면담을 요청받고 시내 다방에서 단둘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쪽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만 강하게 하였다. 내용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못하겠는가? 오늘날 대기업의 실력은 대단하더라. 지난 번 진로주정 사장만 하여도 전남지사를 우습게 알던데 진로보다 더 큰 쌍용은 어렵하겠는가? 그러나 만만하게 보지마라. 유달산 바위덩어리의 정기를 타고 짬물 먹고 자란 깡다구가 있다. 삼학도보전회다 무어다 하지만 별 것이 없고 앞으로 이대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종교인과 학생들을 동원하여서라도 기어코 이 문제는 끝장을 내고 말리라. 당장에는 우리가 질는지 모르나 길게 보면 그 쪽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을 확신 한다” 고 말하고 헤어졌다.

이 면담은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12월초에 목포 MBC방송을 통하여 쌍용시멘트 싸이로는 삼학도에 세우지 않고 물 건너 영암군 삼호면으로 간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자 우리 삼학도 보전회 회원들은 만세를 불렀다.

| 유달산을 아름답게 |

1. 유달산과 케이블카

유달산은 영산강, 삼학도와 더불어 목포의 상징이다. 목포 현지에 사는 현지인뿐만이 아니라 외지에 나가있는 목포인들에게도 이 셋은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지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달산에 쏟은 목포인들의 정성 또한 지극했고 그 정성으로 황폐해가던 유달산도 녹음을 갖춘 산으로 가꾸어져 왔다. ‘한점의 수석’ 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유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달산보전회가 새삼스럽게 생겨나고 유달산을 보호해야 겠다는 목소리가 드높혀졌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유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부터였다.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유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문제도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문제로 받아들여졌고 누구라도 이 문제로 좀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뒷날의 후회나 자탄에도 아랑곳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한 기업인의 의도대로 추진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한 발 앞서 나가 유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경우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를 꼼꼼이 따져 본 사람은 당시 영산호보존회 회장으로 힘겨운 진로주정공장 추방투쟁을 성공리에 마치고 환경보전운동에 전력하던 서한태 박사였다. 서박사께서는 이렇게 회고했다.

일자는 정확치 않으나 85년말 경으로 생각된다, 신안비치호텔을 설계한 삼일건축 서천식 사장이 나에게로 찾아와서 “아제, 호텔에서 유달산 마당바위 근처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질문하기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한 바가 없기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자연보존에 관하여 관심이 있고 평소 내가 존경하는 분들을 만날 적마다 유달산 케이블카설치에 문의 하였다. 백기완 선생에게도 물었고,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최열 연구실장에게도 문의하였으며 서울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서진옥 회장, 김지하 시인에게도 물었다. 그 분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안된다’ 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왜 설치를 반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후로 유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는 들먹거리지지 않은 채 잠잠하더니 1987년 3월이 되자 시중에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당시는 아직 유달산 보존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박사는 일단 삼학도보전회의 명의로 설치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리하여 87년4월3일에는 ‘한라산에 절대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오려서 삼학도보전회의 이름을 집어넣고 복사해서 돌렸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별도로 첨부한 바와 같은 설문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당시까지 혼자서 나름대로 정리한 설치반대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2. 유달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왜 안되는가?

❖ 금번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절차상으로 틀려있다.

도시개발은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거나 공청회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결정을 짓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하였고, 또 개발과 보전의 의견이 맞았을 때에는 서투른 개발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하여 보전하는 쪽으로 결정짓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러한 점에서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 미관상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산 능선에 아무리 좋게 단장하였다 하더라도 50여 평이 넘는 콘크리트 괴물이 설치된다면 산이 아름다울 수 없고 가는 선의 케이블이라 할지라도 빨래줄처럼 꼴 사나울 것이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하나의 큰 ‘수석산’에 과짜같은 것이 오르고 내리면 미관상으로도 좋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승강장이 개인소유이고 보면 부분적으로 흉칙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시 소유 같으면 말할 수 있지만).

❖ 산이 훼손되는 것은 분명하다.

바위를 뚫어 기둥을 세우고 경사진 곳에 50여평의 건물이 버틸려면, 또 케이블카 선을 치게되면 많은 훼손이 뒤따른다는 것은 분명하며, 5분 간격으로 많은 인파를 한 곳에 우글거리게 하면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설계상으로는 화장실이 없으나 케이블카를 타면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 화장실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필요에 따라 조금씩 넓혀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땅굴을 판다 하더라도 간섭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빌려주기가 불행이지 한번 남의 손에 넘어가면 많은 시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산이 훼손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유달산에 케이블카는 필요치 않다.**

십여 분이면 올라가서 바다와 유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산을 훼손시켜가며 케이블카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유달산보다 몇 배 더 크고 유명한 북한산, 지리산, 한라산 등에도 주민들이 반대하여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일본의 유명한 후지산 꼭대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 설치를 아니 하였을까? 남산 케이블카를 들먹이나 요즘 같으면 깨우친 시민의 반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돈이 많이 떨어진다는데 과연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랑 말인가?

❖ **도덕적 · 철학적 개념으로도 안 될 일이다.**

땀 흘려 산에 오름으로써 정복의 희열을 느끼고 배우는 점이 많을 것이다. 편하게 오르는 것은 향락이요 향락은 국민의식구조에 많은 문제를 주게 된다. 맹목적인 개발이나 향락, 이윤보다는 쾌적한 환경 속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이 값진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 **결론적으로 케이블카 설치하는 후세대들의 판단에 맡겨라!**

20여 년 전에는 공해라는 낱말이 사전에도 없었다. 70년대부터 산업화에 눈이 멀어 앞날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서둘러 결정된 모든 일들이 어리석었다는 후회를 되풀이 하지 말고 우리세대보다 더욱 깨우친 후세들의 판단에 맡기자!

3. 유달산 보전에 관한 투쟁일지

이후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문제에 관해서는 시내의 일부 유지들마저도 신한 출신인 신한 비치호텔 사장과의 친분 탓인지 찬성의 뜻을 다방가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유달산 보전회의 결성 이후 활기찬 투쟁으로 결국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다.

그 상황은 다음의 일지로 대신한다.

- 투쟁 일지 -

❖ 87. 4. 12.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인 내용이 실린 동아일보 「횡설수설」을 복사하여 살포

❖ 6. 5.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영산호보존회, 삼학도보전회 공동명의로 '유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 한다' 는 유인물 살포

❖ 7. 1.

유달산보전회 창립과 결의문 채택.

회장: 차남윤, 부회장: 박춘덕 · 강성복

연구위원: 차우균 · 서한태 · 유재열 · 김창용 · 이창식

❖ 7. 4.

삼학도보전회 명의로 전라남도 지사와 목포시장에게 케이블카 설치허가가 났다는 사실과 주민들의 여론 수렴 여부에 관한 질의서 발송

❖ 7. 13.

7월 4일자로 전라남도과 목포시에 질의한 데 대한 회답이 없어 재차 질의

❖ 7. 19.

광주일보에 유달산보전회 창립결의문을 2단 광고기사로 게재

❖ 7. 20.

아침 7시 유달산 충무공동상 앞에서 유달산보전회 월례회 개최. 이 월례회에서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목포시장에게 건의문을 올림.

• 건의문 내용

첫째, 유달산의 특징을 살리고 수종을 개발하는 등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달라.

둘째, 목포문화방송국이 새로운 사옥으로 옮기게 되면 목포시가 그 건물을 매입하여 노적봉을 복원하라.

셋째, 냄새도 나고 녹슨 동물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어떻게겠는가?

넷째, 3·1운동탑 아래 터의 베드민턴 코트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더 심을 곳인데 특수층을 위한 운동장이 웬말이나? 철거하라.

다섯째, 유달산 주변의 고층 건물 높이를 제한하여 유달산을 가리게 하여서는 안된다.

여섯째, 유달산의 수종에 대하여는 전문가인 목포대 조경학과 같은 곳에서 자문을 받아라.

일곱째, 유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

여덟째, 유달산의 중요한 개발문제는 많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결정해라.

❖ 7. 24.

목포시로부터 케이블카 설치 건에 관하여 ‘삭도법상 면허는 이미 교부도 있었으나 설치허가 신청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내용의 회신이 옴. 여섯 가지 내용의 반대 의견을 실은 유인물 살포.

❖ 7. 24.

목포시로부터 ‘케이블카 건은 목포시 도시계획시설 조정계획에 포함 확정된 사업으로 확정 전에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목포시에서 공고한 바 있었고 또한 도에서도 케이블카 면허에 앞서 목포시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87년 4월 7일자로 면허한 바 있다’는 내용의 어처구니없는 회시가 옴.

❖ 7. 30.

케이블카에 대한 공고를 했다는 거짓 회신에 대해 목포시와 도에 재차 질의.

❖ 8. 1.

‘유달산을 아름답게!’ 라는 내용의 유인물 살포.

❖ 8. 20.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준비한 신안비치호텔 주변의 땅에 ‘신안 민속박물관을 설치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내용의 유인물 살포.

- ❖ 8. 22.
7월 20일자 8개 항목의 건의에 대한 회신이 없어 2개 항을 추가하여 재차 질의.
- ❖ 9. 3.
서울신문에 '유달산에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 요구' 라는 기사 실림.
- ❖ 9. 23.
한국일보에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 찬·반론' 이라는 기사 실림.
- ❖ 9. 24.
중앙일보에 '유달산 케이블카 말썽' 이라는 기사 실림.
- ❖ 10. 4.
경향신문에 6단 기사로 '유달산 케이블카 허가 말썽' 이라는 기사 실림.
- ❖ 10. 15.
동아일보에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 요구' 라는 기사 실림.
- ❖ 11. 9.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를 보고' 라는 제목의 유인물 살포.

|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 목포녹색운동단체협의회 편

목포 녹색운동 단체협의회는 87년 11월 24일에 창립되었다 이미 반공해운동단체로 ‘영산 호보존회’, ‘삼학도보존회’ 등이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이 각 단체들은 커다란 싸움이 한 번 지나고 나면 활동이 위축되거나 미온적으로 전락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고 활동 또한 영산호, 삼학도, 유달산 등에 국한되거나 상호 긴밀한 관련을 맺고 전반적인 반공해운동을 펼쳐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와 더불어 이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운동이 이 땅을 오염시키려는 수많은 공격요소들을 막아내는 것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각 개인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까지 끌어올려져야 할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첫째는 커다란 운동이 끝난 다음 조직 활동이 침체되는 것을 막고, 둘째로는 각 단체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지역 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심을 가지며, 셋째로는 공해 없는 사회의 건설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크고, 보다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목포녹색운동단체협의회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원래 반공해운동이란 넓은 의미의 녹색운동이며, 우리 모든 이의 터전인 자연훼손을 막는 생명운동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주민운동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 운동은 반전·반핵을 통한 평화운동까지를 포괄하는 운동이다. 이 모든 사항은 앞으로 녹색운동단체협의회 운동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각 단체들의 윤번제로 월례회의를 주관하고 유인물 살포와 계몽운동 등에서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는 이 단체는 무공해식품 소개 및 장려, 식생활 개선에 대한 계몽,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의 적발 등 초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 운동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연구 작업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연구회는 환경보전 단체와의 유기적인 관련 아래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이 목포녹색연구회와 목포녹색 운동단체협의회의 상세한 활동사항은 활동일지와 자료를 대신한다.

- 활동 일 지 -

❖ 87. 24.

목포녹색운동단체협의회 창립

❖ 12. 5.

나주 왕곡면 행전리에 사는 김태근씨가 광록회와 계약재배한 ‘무공해 무우’ 소개 및 판매.

- ❖ 12.
‘최루탄은 이제 그만’이라는 유인물 배포.
- ❖ 88. 1.
기관지 ‘녹색 운동’ 창간
- ❖ 3. 9.
MBC. T.V의 공해 관련 드라마 ‘침묵의 도시’ 시청 권유 유인물 배포.
- ❖ 5. 20.
보사부장관, 노수산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식생활개선 및 식품공해에 관한 질의.
- ❖ 6. 1.
보건사회부와 농림수산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옴.
- ❖ 6. 5.
제 16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유인물 배포.
- ❖ 6.
‘목포의 상수도료를 서울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
- ❖ 6. 10.
전라남도 지사에게 대불공단에 대한 석유화학, 펄프,
제지 등의 공해업체 입주에 관한 질의.
- ❖ 6. 14.
농수산부장관에게 5. 20일자 질의의 제 2항에 대한 재 질의와 제초제에 관한 질의.
- ❖ 6. 21.
환경청장에게 공해업체 공해순위에 대한 질의.
- ❖ 7. 7.
한산촌에서 생산한 ‘무농약 무’ 소개하는 유인물 배포.
‘목포녹색연구회’ 개소식.
- ❖ 8. 8.
‘목포녹색연구회’ 창립총회를 목포 YMCA 강당에서 가짐.
- ❖ 8. 13.
상수도 지방공사 설치의 모순에 관한 질의.

